

남가주사랑의교회, 이원준 목사 위임 “4기 사역 새 출발”

남가주사랑의교회가 26일 오후 4시 본당에서 제4대 담임목사로 이원준 목사를 위임하는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해 함께 축복했다.

예배는 남가주사랑의교회 이종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연합찬양팀의 찬양과 공동기도, 교육문 낭독, 성경봉독, 특별찬양 순으로 이어졌다. 말씀은 남가주사랑의교회 1대 담임이자 현 서울 사랑의교회 담임인 오정현 목사가 전했다.

오정현 목사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꿈’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교회의 머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교회의 규모가 어떠하든, 지역과 인종, 교단이 어떠하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며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며, 주님의 품이다. 예수님께서 품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주님의 구원은 완전하며 더 이상 보탬이 없다. 이원준 목사 위임 이후 남가주사랑의교회가 더욱 영광스럽고 건강한 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가 26일 오후 4시 본당에서 제4대 이원준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드렸다.

로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원준 목사 위임식은 김진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영찬 목사가 임직서약을 인도했고,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3대 담임)가 임직기도를 드렸다.

노창수 목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에게 충성된 종의 마음과 리더십,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바울에게 주셨던 영혼 사랑의 열정을 허락해 달라”며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종의 리더십을 갖게 하소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이 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4기 사역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 넘치게 하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소서”고 기도했다.

이후 이영찬 목사가 위임을 공포했고, 위임패와 열쇠 전달식을 통해 이원준 목사의 제4대 담임목사 취임이 공식 선포됐다.

축사와 권면의 시간에는 국내외 목회자들과 신학교 총장들의 영상 및 현장 메시지가 이어졌다. 이 시간에는 로잔운동 총재인 더그 버드솔(Dr. Doug Birdsall)과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웨스트민

스터 신학교 총장 피터 릴백(Peter Lillback)과 총장 당선인 데이비드 가너(David Garner), 랭커스터 바이블 칼리지 총장 토미 키디스(Tommy Kiedis), 유니온 신학교 총장 마이클 리브스(Michael Reeves)가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와싱턴중앙로교회 담임 류승렬 목사도 영상으로 축하했다.

이와 함께 현장 축사에서는 예배학 연구기관인 IWS 총장 콘스탄스 체리(Dr. Constance Cherry), 덴버신학교 총장 마크 허스밴즈(Dr. Mark Husbands), 베델교회 담임 김한요 목사와 서울 사랑의교회 후임목사 윤대혁 목사가 참여했다.

한기홍 목사는 “담임목사는 교회의 방향과 모양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남가주사랑의교회에는 제자훈련이라는 분명한 DNA가 있다. 이원준 목사는 교회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알고 핵심가치를 계승할 준비된 목회자이다. 남가주사랑의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다. 앞으로도 연합사역과 지역 섬김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토마스 맹 기자 → 2면에서 계속

‘트럼프 조롱’ 1만 건 vs ‘미국 안보’ 9건 한국 언론, 이란전 보도에 드러난 구조적 편향

복음언론인회 · 교회언론회 한국 언론 보도 행태 분석 “이란 체제의 실상은 묵과, 전쟁 현상만 다뤄”

한국 주요 언론들의 이란전 보도가 동맹국인 미국의 안보 역할을 외면한 채, 인권 탄압국인 이란 체제에는 면죄부를 주는 등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란 내에서 기독교 개종자에 대한 박해와 탄압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언론은

물론 기독교 언론조차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음언론인회(회장 김인영)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사무총장 심만섭 목사)는 4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28일 이란전 개전부터 44일간 생산된 보도 6만 1,548건을 빅카인즈(BIGKinds) 원자료로 전수 분석한 보고서 ‘한국 언론의 이란전 보도 분석’을 공개했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언론은 미국의 안보 기여도에 대해

철저히 침묵했다. 6만여 건의 제목 중 미국의 안보 역할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기사는 단 9건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기사는 162건으로 18배에 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멍청’, ‘미친’, ‘오라카리’ 등 비하와 조롱 섞인 표현을 담은 제목이 1만 628건(17.3%)에 달해 반미 프레임 양상을 보였다. 연구 책임자인 권경희 복음언론인회 공동대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국의 언론이 동맹국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반트럼프 진영의 프레임을 검증 없이 유포하는 것은 동맹 인식을 구조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



복음언론인회와 한국교회언론회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언론의 이란전 보도 분석’을 공개했다. ©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적했다.

반면 인권 유린과 종교 박해를 일삼는 이란 체제의 실상을 다룬 보도는 극히 드물었다. 이란 정권

의 체제 폭력을 제목에 담은 기사는 초기 9.6%에서 전쟁 6일 만에 1.1%로 줄며 사실상 보도에서 사라졌다. 송경호 기자 → 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l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 ■뱅크리스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명언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ADU 전문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리수리 일체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213-310-1800
 K-Urban Like CSLB # 854389

태양광, 솔라!! *전기세 50~90% 절감*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무료 설치 서비스
 전가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합니다.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의게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폴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6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213.500.8000 | **213.798.2200**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언더우드 선교 정신 잇는다... 제1회 선교대회 열려

제1회 언더우드 선교대회가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와 남가주 연세 동문 목회자회 주관으로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 Faith Church에서 개최되었다.

28년간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한 고에스터 권 선교사 추모 1기를 맞아 개최된 이번 선교대회는 1부 예배와 2부 찬양 및 시상식으로 구성됐다.

최우진 목사(새천양교회 담임)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정효남 목사(연복회 회장, 알테시아 장로교회 담임)의 '언더우드 선교 대회 취지', Faith Church 찬양팀과 제프리 존스톤의 개회찬양, 김효남 목사(연복회 이사장)의 대표기도, 연세콰이어의 'God is Our Refuge', 성경봉독 마태복음 28장 19-20절, 천진석 목사(살림교회 담임)의 설교, 문혜란 목사의 헌금 송, 정요한 목사(연복회 경경회장)의 봉헌기도로 진행됐다.

이날 천진석 목사는 "끝나지 않은,

끝날 수 없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이 주신 명령의 핵심은 "전하리"라며, 그 복음의 물결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한 조선 땅을 찾은 선교사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최근 소래교회와 맥킨지선교사의 기록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 1893년 혈혈단신으로 조선을 찾은 그는 짚신을 신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주민들의 고통 속에 깊이 뛰어 들었다. 동학농민운동 당시, 피 흘리는 동학군들을 정성껏 치료해 주기도 했다. 서학(기독교)을 반대하던 동학교도들이 오히려 맥킨지를 존경했다. 진심 어린 사람이 어떻게 벽을 허무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나 그는 30세도 되지 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약혼녀 맥컬리는 슬픔을 딛고 조선으로 건너와 그의 선교의 유업을 이었다. 맥켄지의 비석 뒤편에는 맥컬리



제1회 남가주 언더우드 선교대회. ©기독교일보

가 쓴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가 많다 함이 옳도다. 소래교회는 조선의 처음 열매요, 목사의 몸은 여기서 자도다.'

그는 맥킨지 선교사의 헌신을 에스터 권 선교사의 헌신과 연결지며, "두 선교사님은 주님의 지상명령

을 수행하다 주님 품에 안겼다"고 말했다. 이 선교적 사명이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우리 곁에 있는 서로 다른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상의 선교사의 사명을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찬양 및 시상식은 한정훈 아나운

서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권기숙 회장(연세대 남가주 동문회장)의 개회사, 피아니스트 김은화의 연주, 이화코랄(강영욱 담당), 카이로스 중창단, 연세 콰이어(권병철 담당)의 축가, 김종용 목사(미주 크리스천 신학교 총장)와 서문준 회장(남가주 연세 조찬기도회 회장)의 축사, 지용덕 목사(연복회 경경회장)의 선교상 시상, 신경섭 목사(연복회 부회장)의 광고, 박충기 목사(엘피교회 원로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선교대회에는 Prime ENC(대표 이태훈), 반도건설 미주법인(신동철 사장), 한솔파이낸셜(황선철 회장), 허버하이츠 시니어 호텔(수잔 Lee 원장), 새생명 양로 보건센터, 미주 크리스천 신학교(김종용 총장), 미주 복음방송국(이영선 목사), 미주 연세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석현아), 남가주 이화여고 동문회(회장 김세운) 등이 후원했다. 조셉 리 기자

은혜한인교회 44주년 기념 부흥성회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가 창립 44주년을 맞아 5월 14일(목)부터 17일(일)까지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주제로 부흥성회를 연다.

강사로 서는 김병삼 목사(만나교회는 선교적 관점에서의 목회를 지향하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담장을 뛰어넘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해오고 있다.



5/16(토) 6:00 am, 7:30 pm
5/17(주일) 1부 7:20, 2,3,4부 연합 11:00 이윤준 기자

→ 1면 기사 <이원준 목사 위임>에 이어서 류응렬 목사는 "예수의 피와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김한요 목사는 "한 사람의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훈련, 검증이 필요하다"며 "한 교회의 담임목사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과 말씀의 능력, 영성과 체력이 함께 요구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대혁 목사는 "남가주 사랑의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온 교회"라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위해 이원준 목사를 세우셨다고 믿는다"고 축사했다.

이원준 목사 "목동의 마음 잊지 않겠다"

답사를 전한 이원준 목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목장에서 너를 데려다가 여기까지 이르게 했

다'고 말씀하셨듯, 저 역시 제가 무엇이기엔 하나님께서 이 막중한 책임을 맡기셨는지 다 설명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이어 "이 여정 속에 함께 걸어온 수많은 분들이 생각한다. 저를 신뢰하고 사랑해 주신 성도들과 장로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특히 아내 이은진 사모에게 감사사를 전하며 "한 사역자의 역량은 사모의 헌신과 동역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사랑해준 아내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서 언제나 목동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며 "대목자장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힘써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이원준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베델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

베델교회(김한요 목사)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해 4월 30일부터 5월 2일(토)까지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과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목회자들에게 힘을 제공하고 선교 네트워크를 세우기 위해 열린다. 지난 선교 발자취를 돌아보고, 다가올 50년을 준비하며 선교의 비전을 확장하여 디아스포라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할 선교적 사명을 고취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사는 4월 30일(목)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5월 1일(금) 류응렬 목사(와싱턴 중앙장로교회), 5월 2일(토) 김병삼 목사(만나교회)이다.

▶ 집회 일정
4/30(목) 7:30 pm
5/1(금) 5:30 am, 7:30 pm
5/2(토) 특별 오이코스- 6:00 am, 7:30 pm



▶ 주제 특강 및 선교사와의 만남: 5/2(토) 9:00 am- 12:00 pm
▶ 문의: 박원규 장로 (949)433-0557

→ 1면 기사 <한국 언론 편향>에 이어서

이란 내 신앙의 자유에 대한 무관심은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란은 기독교 개종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가정교회를 탄압하는 체제임에도, 6만여 건 중 기독교 박해를 제목에 올린 기사는 단 27건(0.04%)뿐이었다. 심만섭 한국교회연회회 사무총장은 "기독교 언론조차 이란 내 신앙 박해 문제를 제목 6건으로밖에 다루지 않은 것은 사명 포기에 가깝다"며 "종교의 자유가 없는 체제의 본질을 가리는 보도 행태를 멈춰야 한다" 지적했다.

권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영토인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에는 침묵하면서 중동 분쟁에만 도덕적 결벽증을 보이는 태도는 정치

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며 "이러한 발언은 K-방산의 핵심 파트너인 이스라엘과의 기술 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한미관계 전체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도의 절반을 차지한 경제지들이 전쟁을 단순한 유가 변동이나 투자 기회로만 소비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시장 가격을 다룬 보도가 시장 질서(안보·역지력) 보도보다 24배나 많았다. 보고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가 한국 경제에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위협의 근원을 분석하기보다 단기적 수지에만 매몰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외신 인용에 있어서도 로이터통신(2,684건)이 폭스뉴스(215건)보다 12.5배 많아, 미국 내부의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전

달하지 못하고 특정 진영의 논리만 편향적으로 수입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한국 언론의 세 가지 변화를 촉구하며 첫째로 민간인 피해 보도를 정권의 시민 보호 실패와 같은 구조적 맥락과 함께 다룰 것, 둘째로 경제지는 가격 이전에 공급망과 해상 안보의 질서를 읽을 것, 셋째로 미국 내부의 다양한 시각 분포를 넓게 반영할 것을 제언했다.

권경희 공동대표는 "국민이 매일 접하는 언론 제목이 18대 1로 미국을 부정하고 이란 체제의 악행을 가리다면 동맹의 지지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흔들림은 결국 우리 자신의 안보와 경제적 위기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언론이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TRUSTED SCHOOL IN TOWN





LEARN MORE

EDUCATE ENABLE EQUIP

K-12 PRIVATE CHRISTIAN SCHOOL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CONTACT US!
(213) 487-5437
ncahuskies.org

새생명 오아시스교회 20주년, 영적 세대 교체와 도약의 때

장학봉 목사 초청 부흥집회

2006년 4월 한인타운에 창립된 새생명 오아시스교회(김일형 목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의 비전을 품었다.

4월 24일(금)부터 26일(주일)까지 진행된 20주년 기념 부흥집회에서 메시지를 전한 장학봉 목사는, 20주년이 지닌 영적인 의미를 돌아보며, '아름다운 통곡'을 통해 과거의 상처와 미움, 갈등을 흘려보내는 데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5일 집회에서는 "일어나 행진하라"(신명기 2:24-25)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모세와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로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한 출애굽 2세대로 교체되었듯, '영적인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1. 나이 들은 '태도'의 문제다

그는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래와 85세의 갈렙을 대조하며, 나이와 상관없이 태도가 영적 삶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던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래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내 나이 이제 팔십 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새생명오아시스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장학봉 목사(하남 성안교회)를 초청해 부흥집회를 개최했다. © 기독일보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이까'(삼하 19:35). 그는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을 원하지 않았다."

"반면 85세의 갈렙은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다. '내 나이 비록 85세지만 40대의 비전과 싸움 실력, 용기가 있다'고 선언하며, 결국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한 유일한 지파가 되었다(여호수아 14:11-12). 나이 들은 단순한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다."

2. 영적 교체의 때가 왔다

장 목사는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나아에서 세렛 시내까지 불과

130km(차로 약 2시간) 거리를 38년 동안 헤매야 했던 이유를 지적했다.

"타성에 젖은 태도와 불평, 원망 때문에 38년이 허비되었다. 본문 직전에 모든 1세대 군인들이 멸망했다는 기록(신 2:14)이 나온다. 이는 영적 교체의 시기였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막던 사람들을 치우시고, 새로운 꿈을 꾸는 세대와 함께 도전을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막는 것이다. 삼 일이면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을 40년 동안 못 건너게 한 것이 출애굽 세대였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단

3일 만에 요단강을 건넜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이 교회도 이제 영적 세대 교체를 해야 한다. 과거의 타성에 머물지 말고, 사이즈를 키우고 새로운 동력으로 도약할 때이다."

3. 하나님의 작전: 영적 집중력과 가지치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작전의 핵심은 '집중'이었다.

"에서 후손과 다투지 말라, 모압과 암몬도 괴롭히지 말라, 오직 시온만 정복하라. 이는 영적 집중력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생각이 많아지면 빠르게 갈 수 없다."

"믿음은 단순하다.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알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 영적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4. 말씀을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장 목사는 마지막으로 '아는 말씀'과 '사는 말씀'의 차이를 언급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말씀을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영적인 에너지가 강해지면 우리의 영적 범위가 넓어진다. 바닷물이 힘을 얻으면 솔트라인을 넘어 올라가듯,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면 한계가 깨진다. 슬럼프가 올 때, 운동선수가 기본으로 돌아가 두 배로 연습하듯,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26일(주일)에 임직식에서는 시무장으로 이 제임스, 김주환, 시무안수집사 김 풀, 박규태, 오윤상, 시무권사 김복중, 김성희, 유클로이, 이혜정, 홍현숙이 임직했으며, 장로 황관창, 권사 김지민, 김학예, 심은영이 취임했다. 또한 시무장으로 김성한, 서영완, 윤성원의 은퇴식이 거행됐다. 주디 한 기자

다시, 봄 음악회

남가주임마누엘교회(문두진 목사, 8782 Lampson Ave Garden Grove, CA 92841)에서는 5월 3일(주일) 오후 4시 30분 '다시 봄'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 음악회는 음악을 통해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준비한 음악회이다. 카이로스 남성 중창단, 새노래 선교 합창단, 소프라노 한은영 & 문혜란, 김복원(색소폰) 등 출연한다. 문의: 909-730-3841(문두진 목사)



유튜브 제작의 모든 것, AI 방송 아카데미

AI 방송 아카데미가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에나파크교회(김성남 목사, 7037 Orangehorpe Ave, Buena Park, CA 90621)에서 열린다.

대상은 목회자, 신학생, 미디어 사역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선교에 관심있는 자이다.

오전 세션에서는 '유튜브 선교'의 저자 이세영 박사가 유튜브 알고리즘과 교회 콘텐츠 도달률을 높이는 전략을 강의하고, 일상 공유 유튜브



'허당 그레이스'와 식음료 채널을 운영 중인 '마루네'가 패널로 함께해 실전 노하우를 나눈다.

오후 세션은 미주복음방송 이울

희 PD가 스마트폰·카메라 촬영, 세팅, 유튜브·쇼츠·릴스 편집 전략 등을 나눈다. 이 행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cpuai.org에서 얻을 수 있다. 등록 마감은 5월 11일 월요일까지이다.

AI 방송 아카데미
5월 13일(수) 10:00am- 2:00 pm
장소: 부에나파크 교회 7037 Orange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브라이언 김 초청 집회

찬양 사역자 브라이언 김 초청 교육부 부흥성회가 5월 9일(토) 오후 5시-8시 30분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 본당에서, 5월 10일(주일) 오후 2시 충현선교회(국윤권 목사) 본당에서 열린다.
▶ 5월 9일(토) 5시-8시 30분 감사한인교회
▶ 5월 10일(주일) 오후 2시 충현선교회



5월 7일 국가기도의 날, 영락교회서

올해 국가기도의 날은 5월 7일(목) 오후 7시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 1721 N. Broadway, LA)에서 개최된다.

이번 기도회는 미주성서화운동본부, 나성영락교회, 남가주한인음악협회가 주관하고, 청교도신앙

회복운동, 월드쉐어 USA,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SOON 무브먼트글로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주최한다. 그의 다수 단체가 협력한다.

올해는 ▲회개와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미국의 주요 현안(성

경적 교육 회복 등)을 위하여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하여 ▲조국 대한민국과 차세대를 위해 기도한다. 또한, 중동 지역을 위한 특별 중보기도 시간이 마련된다.

김민선 기자
문의: 213-448-3493

Academic Year 2026-2027

ANC 온누리 장학금 모집

신청기간: 2026년 4월 15일 ~ 5월 31일
제출마감: 2026년 5월 31일 Midnight
신청서 및 접수: www.ancsf.us
장학금 액수: ■ \$1,500 for Undergraduate Students, Community College Students
■ \$2,000 for Graduate Students, Theological Seminary Students

[자격 및 장학금 종류]

- 크리스천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고, 학부는 30세 이하, 대학원은 40세이하 (첨부서류: 추천서, 최근 성적표, 자기 소개서,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허가서)
- General Academic Scholarship:
 - College Scholarship (4year \$ 2Year)
 - Graduate Scholarship (Master & Ph.D)
- 선교사 자녀 / 목회자 자녀 Scholarship

[유의사항]

- Online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신청서, 또는 미비된 신청서는 선발과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된 모든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ANC 온누리 장학금은 수혜자의 특권이지 신청자의 권리가 아니므로, 어떠한 이의제기도 수용되지 않습니다.
- 문의 사항은 이메일 ancsfug@gmail.com로 문의 바랍니다.



Scholarship Application

ANC 장학금 website (www.ancsf.us)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C SCHOLARSHIP FOUNDATION



70년 붓끝에 새긴 세월 ... 김창순 작가, LA 개인전 성황리 개최

70여 년 동안 붓 한 자루로 예술의 길을 걸어온 김창순(로라 김) 작가의 개인전이 LA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LA 한인타운 E.K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회는 지역 예술계 인사들의 관심 속에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붓이랑, 먹이랑, 세월이랑’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전시는 김 작가의 긴 예술 여정을 집약한 자리로, 삶과 예술, 신앙과 인내가 어우러진 작품 세계를 선보였다. 전시장에는 최근작은 물론 40여 년 전 작품, 지인들에게 선물했던 작품 일부까지 총 50여 점이 전시됐다.

특히 이번 전시의 중심에는 길이 70미터에 이르는 대형 작품이 자리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화선지 위에 ‘요한복음’ 전권을 한 자 한 자 필사한 이 작품은 단순한 서예를 넘어 신앙과 예술, 집중력과 인내가 결합된 역작으로 평가받았다. 김 작가는 “1년 동안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자 한 자 써 내려간 작품”이라며 “두루마리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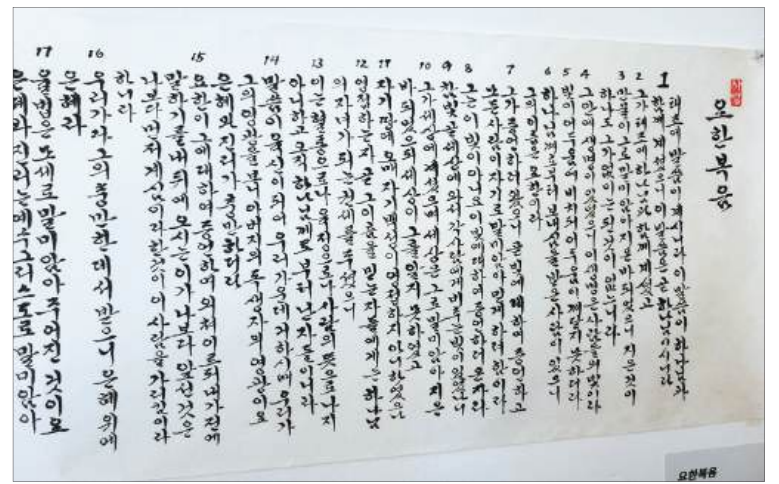
김창순 작가. ©기독교일보

로 전시했다”고 소개했다. 개막일에는 라이브 서예 퍼포먼스도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김 작가는 현장에서 직접 붓을 들고 글씨를 써 내려가며 정적인 전시를 넘어 살아 움직이는 예술의 순간을 관람객들과 나눴다.

80대에 접어든 김 작가는 10살 때 처음 붓을 잡은 이후 평생을 서예와

함께해왔다. 어린 시절부터 재능을 인정받아 초등학교 시절 도지사 표창장을 수상했으며, 이후 일중 김충현 선생에게 사사해 전국 고교 서예 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또한 인전 신덕선 선생과 하능 김순옥 선생에게 사사하며 서예의 기초와 깊이를 다졌다.

1975년 미국 이주 이후에는 문



김창순 작가의 작품. ©기독교일보

학 활동으로 영역을 넓혔다. 한국 일본 문예작품 공모전 시 부문과 미주 ‘문학세계’ 시조 부문에 당선되며 문학적 감수성도 인정받았다. 부동산, 방송,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삶의 경험은 그의 작품 세계에 깊이를 더해왔다.

김 작가는 “세월이 흐르며 붓은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가 되었다”며 “이번 전시는 오랜 시간 붓과 함께 살아온 한 사람의 삶을 자연스

럽게 나누는 자리”라고 말했다. 현재 김 작가는 미주한인서예협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 센터에서 캘리그라피를 지도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갤러리 관계자는 “작품 하나하나에 스며든 시간의 흔적을 통해 관람객들이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사유와 침의 시간을 갖는 뜻깊은 전시가 됐다”고 전했다. 토마스 맹 기자

할렐루야 한인교회, 제6대 박종걸 담임목사 취임

할렐루야 한인교회(미국 남침례교단 소속)가 지난 4월 12일(주일) 오후 5시, 제6대 박종걸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부흥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예배에는 이준영 목사(남가주 침례교 지방회 회장), 강승수 목사(남침례교 한인 전국 총회 총무), 길영환 목사(남침례교단 경증부총회장), 김승식 목사(NAMB 북미선교부 총책임자) 등 교단 주요 인사들과 성도들이 참석해 할렐루야 한인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했다.

최국현 목사(남가주 침례교 지방회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 강승수 목사는 민수기 14장 8~9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전했다. 강 목사는 박종걸 담임목사를 향해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늘 기억하고, 주님 주신 비전을 품으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권면했다. 이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할렐루야 한인교회 제6대 담임 목사 취임 감사예배. ©할렐루야 한인교회

현실 너머의 비전을 보았듯, 할렐루야 한인교회가 지상대명령이라는 본질적 사명을 완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도들에게는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과 따뜻한 격려를 당부했다. 강 목사는 “리더는 고독한 자리이며 많은 책임과 비판 앞에 서기도 한다”며

“박 목사님이 때로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존중하며, 비판보다는 중보기도와 구체적인 격려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성실과 인내의 묵회... “끝까지 견디는 목자 되길”

이어진 2부 취임식은 이준영 목

사의 집례로 엄숙한 서약과 취임 선언이 진행됐다. 이 목사는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엄숙한 약속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권면의 말을 전한 길영환 목사는 자신의 목회를 시작하던 시절을 회고하며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길 목사는 “큰 교회를 이루거나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목사로 남는 것’”이라며, “세상으로 부터 지탄받지 않는 성결한 교회를 이루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주님 만나는 날까지 성실하게 양 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47년의 눈물과 은혜, 겸손히 이어가겠습니다”

3부 축하와 파송 순서에서 윤병준 목사(남가주 뉴비전교회)는 축사를 통해 “눈물로 간구하며 기다려온 성도들과 새로운 목사님이 만나

시 시작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한다”고 축복했다.

박종걸 취임목사는 담사를 통해 낮은 자세로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박 목사는 “지난 47년 동안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성도님들의 보이지 않는 눈물과 헌신,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며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성도님들의 기도 응답임을 믿고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예배는 김영하 목사(남가주 지방회 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제6대 담임으로 취임한 박종걸 목사는 대전 침례신학대학교(교회음악과)를 거쳐 뉴올리언스 침례신학대학원(NOBS)에서 교회음악 석사(MMCM) 및 목회학 석사(M.Div)를 마쳤다.

주디 한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김영길 목사의 가슴으로 읽는 성경
 지친영혼을 깨우는 아침 10분 처방전
큐알코드 촬영 후 구독신청해 주세요
 영혼을 위한 아침 처방전(Morning Prescription)
 [복용법] 매주 월/수/금 아침, 출근길이나 조용한 시간에 복용하세요.
 [효능] 불안 완화, 마음의 편안, 영적 회복
 Youtube.com / @Youngkingamsa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사무소"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포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센터메디컬그룹

5월 1일, 센터메디컬그룹에서
새로운 주치의를 만나실수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 HMO 환자분들도 진료 가능합니다

+ 내과 (일반내과) 전문의

+ 노인과 (시니어) 전문의

이광혁

JOHN K. LEE | MD

- 미국 내과 전문의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 미국 내과 학회(ACP) 회원
- 미국 의사 협회(AMA) 회원
- 미국 노인의학회 회원
- 노인의학 세부전문의 (CAQ in Geriatric Medic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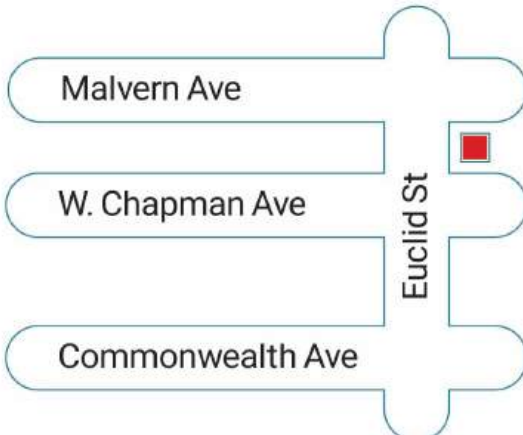


JOHN MEDICAL CLINIC

400 North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714.879.8700

월, 화, 목, 금 | 8:30 AM - 5 PM
수 | 8:30 AM - 4 PM



이광혁 내과 주치의는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합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무디사역문화연구소(소장 이문주 목사)가 23일 오전 서울 강동구 동선교회(담임 박지훈 목사)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미가 6장 8절)을 주제로 제4회 목회자 소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목회자 소명 세미나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하고, 목회자들의 소명 의식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서울 강동구 동선교회에서 열린 무디사역문화연구소 제4회 목회자 소명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무디사역문화연구소는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의 사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됐다. 드와이트 무디는 1867년 영국 방문 설교를 시작으로 1899년 대형 집회에 이르기까지 미국 주요 도시에서 대중 집회를 열어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고, 평신도와 목회자, 선교사들이 배출됐다. 특히 당시 젊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한국교회 부흥의 기초를 마련했다. 연구소는 이러한 전도의 열정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다시 확산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설립됐다.

연구소는 무디 전도자의 특성을 연구·개발하고, 시대에 맞는 문화적 접근을 통해 복음 전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목양지를 떠난 목회자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편, 이들이 다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역도 진행하고 있다. 더

불어 목회자 영성 개발 프로그램을 기획·적용하며 목회 현장의 회복을 돕고 있다.

이문주 소장은 인사말에서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라며 “이번 목회자 소명 세미나를 통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생각하고, 한국교회가 과거 성령의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부흥의 불길에 재점화되기를 바란다”며 “참석한 목회자들을 통해 선한 열매가 이어지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동선교회 담임 박지훈 목사는 “하나님께서 피조를 완성하시듯 우리의 삶과 사역도 완성해 가신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목회자 소명과 신앙, 시대적 사명 재조명

세미나는 이문주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해경 목사(문형장로교회)가 ‘목회자의 소명과 신앙’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 목사는 현대 사회가 정치, 경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는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종교적·도덕적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오늘날 사람들은 죽음과 영생, 천국과 지옥과 같은 문제를 과거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목회자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강조했다.

이어 “하나님은 가시적 교회를 통해 불가시적 교회를 세우신다”며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설명했다. 그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학을 언급하며, 목회 사역을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초대하고 붙드는 수단’으로 정의했다.

또한 “목회는 전도와 양육을 포함하는 사역이며, 선교는 불신자를 믿게 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잘못된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목회자의 바른 신앙으로는 성경 중심의 신앙, 복음 중심의 신앙, 응답을 경험하는 신앙, 성화의 신앙을 제시했다.

끝으로 박 목사는 “목회자는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성도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의 확산 강조

이어 박재열 목사(동선교회 원로)는 ‘영혼 구원, 교회 부흥 안 될 수 없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목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 삼는 사명을 맡기셨고, 성령께서는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 역사하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회의 본질적 역할로서 구원의 방주, 잔치집, 아버지의 집이

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교회가 지속적으로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한다”며 “불신자는 집을 떠난 형제와 같으며,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목회자의 의식 전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영혼 구원의 긴급성과 중요성, 성령충만의 필수성을 강조하며 “전도 중심의 설교와 복음에 대한 사랑이 회복될 때 교회 부흥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했다.

끝으로 박 목사는 “한국에 약 4천 4백만 명의 불신자가 존재한다”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길 때 교회 부흥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 AI 시대 속 목회 전략과 교회 회복 방안 제시

이 밖에도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한명복 박사(전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는 ‘BEYOND AI 물결·MISSION’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속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했고, 윤천석 박사(전 아주대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는 ‘AI를 이용한 영상 제작’을 주제로 디지털 시대 사역 전략을 소개했다. 박영 목사(동도교회 교육목사)는 ‘무임목회자의 교회 복귀 전략’을 발표하며 목회 현장 복귀를 위한 실제적 방안을 제시했다. 장지동 기자

“서울광장, 성정치 무대 아냐... 퀴어축제 개최 안 돼”

서울광장 사용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들이 공공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이곳에서 퀴어축제가 열려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진정한평등을바라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은 2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서울광장은 급진적 성정치의 무대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공공 장소”라며 서울광장의 성격과 운영 원칙을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광장은 특정 집단의 투쟁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다. 서울광장은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 장소이며,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하여 관리되어야 할 공적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 공간의 사용은 언제나 그 공간의 목적, 공공성, 상징성, 일반 시민의 자유롭고 쾌적한 이용

권, 그리고 아동·청소년 보호의 필요와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광장의 상징성과 이용 특성을 언급하며 “서울광장은 시민의 일상적 통행과 휴식, 가족 단위 이용, 청소년의 접근이 예정된 개방형 광장이다. 따라서 그 공간의 사용은 시민 일반의 평온한 이용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공공질서와 건전한 이용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런 점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개최 가능성에 대하여 사실상 긍정적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경솔하다”면서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먼저 서울광장이 어떠한 법적·행정적 성격의 공간인지, 그 공간 사용에 어떤 제한 원리가 작동하는지,

시민 전체의 이용 이익과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하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 후보는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문제와 관련해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과거 퀴어축제를 둘러싸고 제기되어 온 과도한 노출, 선정적 상징물, 외설적 문구, 소음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는 결코 가볍게 처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서울광장과 같은 상징적 공공장소를 언제나 사용해



서울광장 © 뉴시스

야 할 권리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중연, 김한우, 류종길, 민중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우,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우, 구봉주, 국윤권, 김종규, 류용렬, 박은성, 박일서, 오명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중, 써니킴

발행인: 이인규 | 이사장: 폴킴
 편집국장: 맹창현
 고문변호사: 정찬용
 지사: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213) 739 - 0403
 E-mail: chdaily@la@gmail.com
 주소: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사람을 살리는 슈퍼푸드, Teloyouth 퇴행에서 재생으로! 노화에서 역노화로!

주요 라디오 · 신문이 주목한 텔로유스(TeloYouth) 젊음회복 프로그램
LA 라디오코리아, 라디오서울, 우리방송, CBS 기독교TV, NY 라디오코리아, NY K라디오, 아틀란타 라디오코리아 등 주요 방송사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뉴욕일보, 타운뉴스, 교차로, 밸리뉴스 등 주요 신문사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젊음 회복 기술, 텔로유스를 소개합니다.



건강의 '마스터 키', 줄기세포

텔로유스는
우리 몸의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을 최대 3,600%까지 유도하는 10년 이상 앞시간 세포신호(Cell Signaling) 기반의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로, 몸 전체의 구조적 균형, 기능적 회복, 그리고 감정적 체계까지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Teloyouth의 특징

- 온몸의 세포 기능과 구조, 그리고 감정적 체계까지 회복
- 생체나이 검사에서 13년 젊어진 사례
- 재구매율 91%
- 12개월 머니백 개런티
- 12가지 글로벌 품질인증
- 6가지 임상실 (독일 대학교, 콜로라도 대학교, 마이애미 대학교, 노르웨이 병원 등)

퀀텀 젊음회복 6개월 프로그램 패키지 \$2,478



프로모션 \$2,478 패키지 구매시 텔로유스 파우더 한병(\$300)

12가지 국제인증마크와 제3기관 임상실험들, 그리고 수많은 체험사례들이 텔로유스의 퀀텀 젊음회복 프로그램을 증명합니다!

- Dr.D**Kim님: 갑자기 찾아온 전립선4기암 진단은 60여년간 의사생활을 해온 나에게도 실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음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전립선암수치를 측정하는 PSA가 400에서 209, 1.5, 0.8로 떨어지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황반변성이 좋아진 것은 신경과 전문의로서 가히 우리몸에서의 줄기세포가 불가능하다는 신경세포도 되살릴수 있음을 확인해주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 Dr.J**Park님: 22년간 가정주치의로 많은 환자들을 돌보았지만 정작 내 자신의 혈당은 약으로도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높은 혈당으로 인해 다리부종이 심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혈당이 조정되며 붓던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A1C 가 8.1에서 7.3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이**님: 심장수술, 취장암수술에 이어 두번의 뇌졸중이 오며 워커로 겨우 걷던 것이 지금은 혼자 걸을 수 있고, 물조차 입으로 먹을수 없어 G-tube를 낀 채 생활한지 1년이 넘었는데, 젊음회복 프로그램 5개월째인 지금, 조금씩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 S**님: 친구들이 보톡스 맞았냐고 물어봅니다. 70대에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고 팽팽할 수 있을까 거울보는 것이 행복합니다.
- J**님: 지난 40여년 사용해오던 십여가지 약에 의지하지 않아도 하루 생활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 이**님: 부끄러워서 숨기고만 있었던 발톱무좀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 W**님: 20년간 복용하던 우울증약을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정**님: 불면증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날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 D**님: 70대이지만 동창회가면 제일 젊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날마다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 레**님: 90대에도 소일로 발일하시며 마을에서 제일 건강하시다는 저의 노모의 건강은 텔로유스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 F**님: 공황장애 약에 의지하지 않고도 많이 편해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 R**님: 갱년기 증상들이 다 없어졌어요, 늘 피곤하면 나타났던 구순염도 이제는 더이상 나오지 않네요
- S**님: 평생 고생하던 천식때문에 기침을 달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너무나 멀쩡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 하*님: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뽐뽐 솟습니다.
- **자님: 80대에도 고운 피부와 젊은 에너지로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 J**님: 10년동안 고생하던 혈당조절이 이제 정상으로 잘 됩니다.
- N**님: 딸인 저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던 엄마가 저를 알아보세요, 이걸 기적입니다!

그 외 수많은 체험사례들을 www.TeloYouthKorean.com 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임상실험 Clinical Studies
인지기능 46.2% 향상/줄기세포배출량 377%. University of Miami
우울증개선 Blefgeil Hospital, Kongsberg, Norway
스트레스호르몬 50%까지 감소. University of Trier, Germany
성욕구/만족도 University of Trier, Germany
근육량 증가 University of Colorado



세포 신호 기술력으로 우리 몸의 줄기세포를 36배 생산 · 배출 · 활성화하여 건강 회복에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 더 이상 건강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 Teloyouth 12개월 젊음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과 마음의 재생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줄기세포 사업 소개

- 5월 9일(토) 오후 2시
- 예약 필수
- 문의 : 714-732-8477 폴 킴 수석코치

www.TeloHealing.com
www.TeloYouthKorean.com

줄기세포 건강사업 코치 모집

- 21세기 세포신호 기술 기반 젊음회복 프로그램
- 세포신호 기술력 독점, 재구매율 91%
- 코치 교육 시스템 제공
- 월 \$10,000 이상 수입 가능

문의 : 폴 킴 (TeloYouth 수석코치)

☎ 714-732-8477



TELOYOUTH

www.TeloHealing.com

“크리스천, AI 악용 대비해 파수꾼 역할 해야”

전 세계 방송선교 사역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AI 시대 기독교 미디어의 나아갈 길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이사장 이영훈 목사, 회장 김하나 목사, 이하 WCBA) 서울대회 둘째 날인 4월 22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는 'AI 시대, 기독교 미디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 세미나가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김재원 전 KBS 아나운서 사회로 강사들의 강연과 패널들의 토의가 이어졌다. 먼저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소장 김명주 교수(서울여대)는 윤리적 문제를 주로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AI 기본법'이 제정됐지만, '법은 윤리라는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다'고 했다”며 “윤리가 성숙해지지 않은 가운데, 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명주 교수는 “기술이 주는 혜택이 대단히 크다. 선교만 해도 언어가 가장 큰 장애물인데, AI가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됐다”며 “과거 도입됐던 새로운 기술들에 비해 AI는 너무 똑똑해서 인간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투명성과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어떤 기술이든 이용에 앞서 보편적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 모두를 이롭게 해야 하고, 가장 처음 도입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AI를 활용한 딥페이크로 잘못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퍼뜨려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했다.

그는 “AI 기술에 점점 한계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천들은 AI 기술의 악용에 대비해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했다. 특히 기독교 미디어들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후 스파크 AI교육연구소 마상욱 소장은 AI 실제 사용과 관련된 이슈들을 소개했다. 그는 “지금 검색의 시대에서 생성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교육학 전공으로서 교육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AI 연구를

시작했다”며 “그런데 요즘은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과 안 쓰는 사람들로 양극화되고 있다. 그리고 AI가 인간을 대체하기보다, AI를 쓰는 사람이 안 쓰는 사람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상욱 소장은 “AI가 LLM(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VLM(이미지와 영상, 텍스트를 함께 이해하는 멀티모달 모델), 그리고 VLA(VLM의 이해 기능에 물리적 동작을 더한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며 “올해 말을 지나면서, 이제 피지컬AI로까지 갈 것이다. 방송 환경도 여러 사람이 며칠씩 걸려서 하던 일들이 AI가 짧은 시간에 대신 맡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 소장은 “AI를 활용하는 인간은 인간의 상체에 말의 하체를 가진 '켄타우로스'가 되어야 한다. 상체가 말이고 하체가 인간이

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AI 시대에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봉사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여전히 실천해야 한다. 기술은 도구일 뿐, 진정한 영성은 우리 행동과 삶에서 드러날 것이다. 진짜 '영성의 시대'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도 이어졌다. 한국기독교AI위원회 공동위원장 안중배 교수(한세대)는 “크리스천들의 고민은 AI로 무엇이 가능한가 아니라, 과연 어떻게 AI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중배 교수는 “무한대 가능성이 있는 AI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한다면 희망과 축복이 되겠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라며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영성과 인성, 창의성과 개성,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에 의한 윤리적 판단을 잘 점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주 교수는 “잘못하면 현 세대가 역사상 가장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회사가 점점 신규 직원을 뽑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남은 시니어 세대가 물러나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며 “AI로 모두 대체할 수 있지만 그 한계에 대해 지금부터 논의하지 않을 경우, 불가역적 변화로 고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AI

를 크리스천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충분히 사용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제대로 된 활용도, 악용 가능성이나 문제점도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깊이 들어가서, AI 답론의 핵심을 짚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상욱 소장은 “x축이 '언어의 시각화'라면, y축은 '언어에서 지식을 정리하고 바깥과 연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AI는 이 x축과 y축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언어와 이를 매개할 미디어가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 크리스천들은 AI를 통해 닫히게 된 문 대신, 새롭게 열리는 문을 볼 필요가 있다. 답은 현장에서 함께 찾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중배 교수는 “기독교 미디어가 세상을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인간다움을 강화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용해야 한다”며 “중심은 말씀이지만 개별성을 강화한다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여성주 상무(EY AI, 전 SK디스커버리 AI총괄)는 “기독교를 잘 설명하는 LLM을 만나본 적이 없고, 그 안에서는 이단의 자료들과 제대로 구분하기도 힘들다”며 “어차피 AI를 써야 한다면, 잘못된 정보나 환각 없이 기독교를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독교만의 특화된 LLM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한교연, 인도네시아서 임원 워크숍 ‘이슬람 땅의 기독교’ 체험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천환 목사, 이하 한교연)이 지난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마나도에서 '2026 임원워크숍'을 진행했다. 천환 대표회장을 비롯해 상임회장과 공동회장 등 주요 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워크숍은 한국교회의 하나 됨과 부흥을 위한 한교연의 정체성 정립과 임원 상호 간의 결속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해외 워크숍 장소로 특별히 인도네시아 마나도를 선택하게 된 것은 마나도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개신교회 수가 가장 많고 기독교 인구 비율 또한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한교연 측은 전했다.

한교연은 “전체 인구 중 이슬람이 85%나 되는 나라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지역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며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



한교연 임원들이 기도하고 있다. ©한교연

리고 부흥 성장해 왔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신앙의 도전을 받으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 한교연이 방문한 마나도는 인도네시아 중앙에서 북쪽으로 튀어나온 술라웨시 섬의 끝에 위치

한 도시다. 수도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3~4시간이 걸리며 필리핀 남부와 인접하고 있어 동남아시아 해상 교통의 중간 지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 개신교회가 1천 개가 넘는 정도로 도시 전체가 기

독교화된 데는 17세기 네덜란드의 식민지 지배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네덜란드 개척교회 선교사들이 이 지역에 미션스쿨을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등 복음 선교에 매진한 결과 이슬람이 왕성한 땅에 복음이 꽃피우고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한교연은 설명했다.

한교연은 “화란 개척교회가 이곳 마나도에 와서 한 선교연 중요한 특징이 있다. 바로 교육을 통한 선교 확장이다. 요한 프리드리히 리델, 요한 고크리브 슈바르츠 선교사는 마나도에 와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쳤다”며 “선교사에게서 복음의 진리를 배운 이들이 오늘 마나도에 교회를 세우고 목사, 교회 지도자로 복음을 증거하며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화란 개척교회의 선교 방

법은 140년 전 미국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와서 했던 선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그들도 초기에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워 복음을 가르치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 했다. 한교연 임원들은 인도네시아 도착 첫 일정을 인도네시아 내에서 가장 큰 교단인 GMIM 마나도(Manado) 교회 방문으로 시작했다. 이 교회는 화란 개척교회 선교사들의 복음 선교를 받아들여 인도네시아 현지인이 세운 교회로 출석 교인이 5천명이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마나도를 대표하는 복음교회로 알려져 있다.

버스를 타고 도시 곳곳을 돌아본 결과 이 교회 외에도 크고 작은 수많은 교회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김진영 기자



직원420명, 전문의사(스페셜닥터) 38명 종합병원에서 드리는 종합 건강검진 혜택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 검진내용** *산부인과 질 초음파는 산부인과 전문의사가 진료합니다.
- ♣ 뇌MRI, 대장내시경 선택 1
 - ♣ 수면 위내시경
 - ♣ CT 촬영 (뇌, 폐 선택)
 - ♣ 종양표지자 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갑상선 검사. T3, T4, TSH
(갑상선 항진, 저하)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간기능, 콜레스테롤, 심장질환 등 혈액검사 및 기본검사
 - ♣ 산부인과 질 초음파
전립선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검진비용

~~\$1,250~~ **\$430** (환율변동)

\$100불 할인예약증
\$330불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양도 양수가능)

새 생각, 새 의술
헤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종교 변경 · 신분증 문제로 '이슬람 도전' 혐의 논란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이집트에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남성이 '이슬람을 도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종교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4월 22일 보도했다.

CDI는 카이로에서 지난 4월 21일 라말라 출신 기독교 개종자 사이드 만수르 레즈크 압텔라제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를 변경하고 신분증에 기재된 종교를 수정하려 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뒤, 테러 관련 혐의까지 함께 적용된 상태다.

이집트에서는 배교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공식 신분증에서 종교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개종자들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슬람 모독' 등 복수 혐의... 재판 일정 연기

인권단체 콤팩솔리더리티에 따르면 검찰은 압텔라제크에게 불법 단체 설립 및 주도, 불법 단체 가입, 자금 지원, 사회 질서를 해치는 사상 유포, 이슬람 모독 및 근본 원칙 도전 등 여러 혐의를 적용했다.

변호인단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 공판을 오는 6월 15일로 지정했다.

압텔라제크는 현재 카이로 인근 제10 라마단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음식과 의복, 의료 서비스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열린 바드르 법원은 테러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 법원으로, 절차의 불투명성과 피고인의 권리 보장 부족 문제로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개종 이후 지속된 압박... 해외 도피 후 강제 송환

CDI는 압텔라제크가 2016년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 사회적·법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2019년 러시아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망명을 신청했



라말라 출신 기독교 개종자 사이드 만수르 레즈크 압텔라제크. 그는 이슬람을 도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나, 2023년 이슬람을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과 온라인 게시물로 인해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이후 2024년 러시아 당국은 그를 이집트로 추방했으며, 인권단체들은 이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위반으로 지적했다. 그는 유엔난민기구로부터 국제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본국으로 돌려보내졌다.

이집트로 송환된 직후 그는 약 10일간의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구금됐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라는 압박과 함께 다른 개종자들을 감시하라는 요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한때 그를 석방했지만, 공개 발언과 전도 활동을 금지했다.

재구금과 고문 의혹... 국제사회 대응 요구 확대

압텔라제크는 2025년 7월 종교 관련 게시물을 다시 올리고 신분증 종교 표기 변경을 시도한 이후 영장 없이 재구금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강제로 기독교 문신 제거 시술을 받았으며, 장시간 매달리는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그는 호주 인도적 비자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의 약혼자가 호주 국적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승연 기자

성경은 허용됐지만 사제 방문은 불허 팔레스타인 기독교 수감자 논란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기독교 수감자가 2년 넘게 요청해 온 성경 반입은 허용됐지만, 사제 방문은 끝내 거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교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4월 22일 보도했다.

예루살렘 법률지원인권센터(JLAC)에 따르면 라말라 출신 수감자 라미 리즈크 파다엘은 네게브 사막 지역의 고보안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성경 제공과 사제 방문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교도소 당국은 오랜 기간 두 요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JLAC의 법적 대응이 이어지면서 교도소 측은 최근 성경 제공을 허용했지만, 사제 방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허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성경 제공 승인... 사제 방문은 여전히 불허

JLAC의 라미 살레 소장은 "2025년 12월부터 성경 접근과 사제 방문이라는 두 가지 요청을 공식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가톨릭 신앙에서는 사제를 통한 성례와 정기적인 고해성사가 매우 중요한 신앙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네게브 지역 나프하 교도소가 처음에는 두 요청을 모두 거부했으며, 최근 예야 성경 제공만 부분적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10월 이후 수감자들의 종교 서적이 일괄 압수됐고, 이후 코란은 반환됐지만 성경은 오랜 기간 제공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성경 제공 과정에서도 수감자의 서명 요청서 제출 등 복잡한 절차가 요구됐으며, 가족이 변호사를 통해 위임장을 작성하고 직접 서명을 확보해야 하는 등 상당한 행정적 장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LAC는 사제 방문을 금지한 결정에 대해 항소 절차를 준비 중이다.



라미 리즈크 파다엘의 모습. 그는 2년 넘게 수감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경 제공과 사제 방문을 요청해 왔다. ©CDI

■ 가족 "성경 허용은 다행... 여전히 고립 상태 지속"

수감자의 어머니 모나 파다엘은 성경 제공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들의 현재 상황이 여전히 극심한 고립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변호사만 약 40일에 한 번 면담이 가능할 뿐 가족이나 사제의 방문은 전혀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체포 이후 전화 통화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면회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들이 이스라엘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를 위해 약 6000세켈(약 2000달러)의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2년 넘는 행정구금... 인권 문제로 번지는 논쟁

라미 파다엘은 기소나 재판 없이 구금되는 행정구금 상태로 2년 4개월 이상 수감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구금은 통상 6개월 단위로 연장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한두 차례 갱신되는 것이 관례지만 그의 경우 반복적인 연장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에 따르면 함께 체포된 다른 수감자는 이미 석방됐지만, 그의 구금은 추가로 연장됐다.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어린이성경공부 오후 1:30
백송찬양대 주일 오후 1:15

평일 영혼의심예배
- 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세대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요일 0시) 오전 6시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화-토) -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청년부/도미일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션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OMC 중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분당 OMC 소년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주일영양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애제가 삼이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형섭 담임목사

세계선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일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곽부현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A, CA 90019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형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찬양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리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서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장년부 오후 2:30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전교인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당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아침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월/수/금) 새벽 6:00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유년부, 유년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영아 유년부, 유년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부흥회 토요일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매달 마지막 금요일)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월-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inlandchurch.org

美 '뱃타이즈 더 월드' 5월 개최



©Instagram/baptizetheworld

캘리포니아의 한 메가처치 목회자가 이끄는 전도 사역이 수년간 수천 명에게 세례를 베풀며 이어, 다음 달 전 세계 수만 명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한 글로벌 행사 준비에 나섰다.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멀티캠퍼스 교회 오션스처치(Oceans Church)의 마크 프랜시 목사가 주도하는 '뱃타이즈 캘리포니아(Baptize California)'는 오는 5월 24일 전 세계적 세례 행사인 '뱃타이즈 더 월드(Baptize the World)'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프랜시 목사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라고 믿는다"며 "첫해에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해, 다음 해에는 캘리포니아 전역, 지난 해에는 미국, 그리고 올해는 전 세계로 확장됐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뱃타이즈 캘리포니아'가 처음으로 전 세계 규모의 행사를 시도하는 해로, 최종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세례를 받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프랜시 목사는 "개인과 교회를 조직하고 참여시키는 과정에는 복잡한 요소들이 많다"면서도 "행사 준비팀이 모든 요소를 훌륭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세례는 당일에는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수치를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수만 명, 나아가 10만 명 이상까지

도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단지 그물을 준비하고 교회가 그것을 던지도록 돕는 역할을 할 뿐이며, 결과는 예수께 맡긴다"고 덧붙였다.

행사 홍보와 관련해 프랜시 목사는 각 참여 국가가 자국 이름을 활용해 '뱃타이즈 더 월드'를 독자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뱃타이즈 덴마크나 '뱃타이즈 캐나다'와 같은 형태로 지역 운동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행사와 협력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러한 방식은 각 교회에 주인의식과 기대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더 큰 공동체와 연결되는 장점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프랜시 목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신앙이 없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즉각적인 반응으로 세례를 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지난 3년간의 경험을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뒤 지역 교회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았다"며 "교회 간의 연합과 협력은 비신자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가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교회의 성장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뱃타이즈 캘리포니아'는 2024년 오순절 주일에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1만 2천 명 이상이 세례를 받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세례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미경 기자

"종교 없던 우주비행사도 눈물" 아르테미스 II 사령관 고백



리드 와이즈먼 사령관. ©NASA Johnson 유투브 캡처

미국 항공우주국(NASA) 아르테미스 II 임무를 이끈 리드 와이즈먼 사령관이 우주 임무를 마친 뒤 깊은 감정적 변화를 겪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와이즈먼 사령관은 텍사스주 휴스턴 존슨 우주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종교적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무 종료 후 강한 감정에 휩싸여 해군 군복과의 면담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최근 아르테미스 II 임무를 마치고 귀환한 우주비행사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주에서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과거 아폴로 14호 임무 이후 인간 의식의 본질 연구에 집중했던 우주비행사 에드거 미첼과 유사한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다.

와이즈먼은 지구 귀환 후 '우주적 연결성'이나 '의식의 변화'를 느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당시의 감정적 충격을 설명했다.

그는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그 경험을 설명하거나 받아들일 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그래서 해군 함정에 있던 군복을 잠시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를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목사의 옷깃에 달린 십자가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며 "우리가 겪은 일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또한 "아직 의료 검사 등을 진행 중이라 충분히 되돌아볼 시간이 없었다"며 "태양이 달 뒤로 가려지는 장면을 보았을 때, 우리 네 명 모두가 그 광경을 완전히 이해할 수준에 아직 인류가 도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세계의 일이었다"고 회상했다.

아르테미스 II 임무의 파일럿인 벡터 글로버 역시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특별한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글로버는 부활절 당시 CBS 뉴스와의 우주 인터뷰에서도 지구를 떠난 경험이 자신의 신앙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우주선에 있지만, 사실 지구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우주선과 같다"며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지구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특별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 거대한 공허 속에서 특별한 존재이며, 서로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NASA에 따르면 아르테미스 II 임무는 약 일주일간 진행된 유인 달 비행으로, 향후 달 재탐사와 화성 탐사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NASA는 오는 2028년 약 21일간 진행될 아르테미스 IV 임무를 계획하고 있으며, 해당 임무에서는 달 표면 착륙과 약 일주일간의 체류가 포함될 예정이다.

왜 우리는 관계가 무너질 때 '무너지는 느낌'을 경험하는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데이비드 주콜로토 박사의 기고글인 '연결의 심리학: 관계가 깨질 때 우리는 '무너지는 듯한' 감정을 느끼는가'(The psychology of connection: Why we feel 'undone' when our relationships break?)를 4월 23일 게재했다.

주콜로토 박사는 전직 목사이자 임상 심리학자이며 35년 동안 병원, 중독 치료 센터, 외래 진료소 및 개인 진료소에서 근무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있을 수 없는 캘리포니아 몬테레이의 어느 밤이었다. 신선한 바람과 짙짙한 바다 공기가 어우러진, 아무리 지치고 힘든 하루였어도 조금은 가볍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저녁이었다. 그날 마지막 환자는 팀이었다. 스물두 살의 그는 밝고 예술적인 감각을 지닌 매력적인 청년이었지만, 어딘가 쉽게 정의하기 어려운 면도 있었다. 상담을 마친 뒤, 그는 최근에 산 머스탱 컨버터블을 보여주겠다고 주차장까지 함께 나가 달라고 했다. 그 차는 그에게 작은 승리였다. 지붕을 열고, 음악을 크게 틀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다.

필자는 1년 넘게 그와 함께했다. 그의 우울함은 분명 느껴졌지만, 그것이 그의 전부만은 아니었다. 그는 지역 클럽에서 기타를 연주했고, 재치 있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었다. 재능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으며, 계속 살아갈 이유도 충분히 보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필자는 그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떠올렸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전화를 받았다. 팀이 몬테레이 다리에서 아래 바위와 바다로 몸을 던졌다는 소식이었다. 이후의 상황은 분명하지 않았다. 이별에 관한 이야기였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귀던 연인이었다고 했다. 그렇게, 음악과 재능, 학업과 노력 위에 세워졌던 그의 정체성은 관계의 상실이라는 무게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팀과 같은 사례는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과연 혼자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가, 아니면 더 깊은 차원에서 언제나 누군가의 존재에 의존하고 있는가?

우리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나란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다. 정체성은 혼자 이루는 독주가 아니라, 이종주이며 때로는 합창에 가깝다. 그 가운데 하나의 목소리가 배신이나 부재, 거절, 혹은 죽음으로 사라질 때, 그 침묵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게 느껴진다. 우리는 자기이해, 자기돌봄, 자기실현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더 강한 '자아'가 아니라, 더 안전하고 견고한 '관계'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관계는 단연 두드러진다. 관계는 단순한 영향 요소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연결하는 실과 같다. 성격이나 능력, 심지어 개인적 신념보다도 관계는 우리를 정의하고, 움직이며, 형성한다.

성경은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인간의 삶은 고립에서 시작되지 않고, 인격적인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는 말씀은 관계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준다. 삼위일체로 이해되는 이 신비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한다. 관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본질이다. 그렇다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에게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임상 현장에서 이 진리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가 깨졌을 때 상담을 찾는다. 침묵으로 식어버린 결혼, 자녀를 잃은 부모, 신뢰를 배신당한 친구, 여전히 아버지의 인정을 갈망하는 중년의 아들. 우리는 연결을 갈망하며, 그것이 손상될 때 단순히 외로움을 느끼는 것을 넘어 '무너지는 느낌'을 경험한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어머니의 시선, 아버지의 목소리, 친구의 웃음, 선생님의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을 빚는다. 정체성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아이들은 누군가 자신을 기뻐할 때 자신감을 배우고, 청소년은 누군가 자신을 믿어줄 때 꿈을 꾸다. 성인이 된 이후에



데이비드 주콜로토 박사. ©Christian Post

우리는 여전히 "너는 소중하다", "너는 속해 있다", "너는 이해받고 있다"는 목소리를 찾는다.

그래서 반항조차도 관계적이다. 청소년들은 독립을 선언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소속으로 이동할 뿐이다. 운동선수, 예술가, 게이머, 아웃사이더, 활동가—그들은 서로를 닮아가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독립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선택된 의존일 때가 많다.

오늘날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체성은 내면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결국 인정과 반응을 요구한다. 그것은 반드시 공동체 속에서 형성된다.

부모들은 이를 본능적으로 안다. 아이들은 고립 속에서 자라지 않는다. 수많은 일상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란다. 가정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정체성을 만드는 공간이다. 그러나 인간 관계는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배우자는 깊이 사랑하면서도 우리를 오해할 수 있고, 부모는 상처를 주면서도 우리를 규정하지는 못한다. 타인의 시선은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권위는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정체성이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형성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수평적인 시선뿐 아니라 수직적인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관계도 완전하지 않다. 그것은 귀한 선물이지만, 영혼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할 수는 없다.

성경은 관계를 단순한 영향 이상의 것으로 말한다.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말씀처럼, 관계는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존재 자체를 형성한다.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용납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달라진다. 이것이 성경이 친밀함과 충성, 타협에 대해 경고하는 이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변 민족과의 연합을 경계하신 이유는 문화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다. 솔로몬의 삶이 보여주듯, 타락은 갑작스럽기보다 서서히 일어난다.

신약에서도 같은 원리가 나타난다.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는 권면은 관계가 결코 중립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관계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거나, 타협을 정상으로 만든다.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관계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종종 관계가 무너진 후에야 이를 깨닫는다. 왜곡된 관계는 정체성을 뒤엎고, 의존적인 관계는 그것을 약화시키며, 학대적인 관계는 그것을 무너뜨린다. 회복은 정직한 경계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것은 관계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다. 관계를 올바른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를 잘못 규정했던 모든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야 한다. 동시에 이는 관계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힘을 정확히 인정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죽음을 통한 상실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숨이 멎는 듯한 공허를 느낀다. 성경에서 '숨'은 생명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흠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살게 하셨다. 그래서 죽음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상실로 다가온다.

최승연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d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평일(화-금) 05: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일 06:00AM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 예배 (KM)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주일 예배 (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3-5)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j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기레슬)**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물레슬)**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양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한여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i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요일 5:30/토요일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후 11:00
고교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크스필드 ANC은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 풍요로운 삶 오전 9:30
화요 3,3,3 기도회 매일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TEE 영육 Zoom** 오후 7:30
목요 거리집도 오전 10:00 **한인타운**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송금관 담임목사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어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성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f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새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일예**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김광석 담임목사

라운드락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kp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학생 모 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INNEX PRO **아이넥스 프로**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2811 Leeward Ave, LA, CA 90005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르트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역임

FOP SERVICE, INC. License# 1139798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70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술밥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샘 라이너 목사 초청 한인교회 진단 세미나

남가주교협(회장 김은목 목사)이 오는 6월 2일(화)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LA 한인타운 아로마 센터 5층 더윈에서 샘 라이너 목사(Church Answers 대표)초청해 '미주 한인 이민교회의 진단과 미래'를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사로 나서는 샘 라이너牧사는 교회 성장, 교회 재활성화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목회자이자 컨설턴트다. 현재 플로리다주 웨스트 브레이튼 침례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송금관 목사(남가주교협 부회

장)는 "출석 인원 감소와 다음세대 감소 등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한인교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라며 "외부 전문 시각을 통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인 이민교회가 내부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민족교회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고립이 아닌 연합과 확장의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샘 라이너 목사 초청 세미나 **6월 2일(화) 오전 10시-3시**
 아로마 센터 5층 더윈



샘 라이너 목사(교회 성장 컨설턴트) © samrainer.com/
 3680 Wilshire Blvd LA, CA 90010

찬양으로 전한 위로와 기쁨, NCA CORP 공연

지난 4월 25일 NCA(New Covenant Academy) 학교의 동아리 CORP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 공연을 선사했다.

학생들은 알콧재활양로병원(Alcott Convalescent Center)를 방문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다. 공연은 11학년 학생들의 "Give Thanks" 찬양으로 시작됐다. 이어 영어와 수어로 공연에서는 익숙한 멜로디에 어르신들도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호응했다. 이후 첼로와 플루트 듀엣 "Hallelujah"과 10학년 합창이 이어졌다.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노래하며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앵콜 요청까지 이어졌다.

이어 CORP 임원인 Kailey Kim, Evelyn Lee, Emily Perez, Hye-mi Lee가 밴드 공연을 선보였다. "Heart of Worship" 무대는 뛰어난 보컬과 완성도 높은 연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이후 회장 Kailey Kim은 피아노



새언약아카데미 동아리 CORP가 알콧재활양로병원을 방문해 공연했다. © NCA CORP

반주에 맞춰 솔로곡 "고향의 봄"을 불러 어르신들의 향수를 자극하며 따뜻한 감동을 더했다. 이 밖에도 Chloe Ha, Caleb Cho, Sonia Parmale, Kristina Fabian, Grace Jeronimo, Sariah Johnson, Joy Shin, Jonathan Shin, Chris Min 등 학생들이 공연을 펼쳤다. 공연의 마지막은 모든 멤버들

이 함께한 무대로 장식됐다. 학생들과 어르신들은 함께 춤을 추며 웃음과 사랑 속에서 이날 방문을 마무리했다.

몇 주간 정성껏 준비한 학생들의 노력은 어르신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으며, CORP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섬기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민선 기자

건강·경제·선교를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

최근 세포신호기술을 기반으로 한 'Teloyouth 젊음 회복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Teloyouth는 인체 내 즐기세포의 활성화를 돕는 세포신호 기술을 중심으로, 건강 회복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까지 연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인체에서 즐기세포 활성화를 촉진하여 신체 기능 회복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체험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Teloyouth 측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재구매율이 91%에 달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며 "12개월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회복과

삶의 질 개선을 경험한 사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다"고 전했다. 또한 100만 명 이상이 해당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변화를 체감했다.

이와 함께 Teloyouth는 'Business As Mission(B.A.M)' 개념을 적용한 비즈니스 모델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비즈니스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동시에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선교와 사역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계자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교회와 리더들이 성도들의 삶 전반을 돌볼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Teloyouth는 건강 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Teloyouth는 오는 5월 9일(토) 오후 2시, 캘리포니아 부에나 파크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세포신호 기술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실제 변화 사례,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 전략 등이 공유될 예정이다.

행사는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5월 6일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문의: 714-732-8477 (폴 김 수석코치)
 주소: 6820 Orangethorpe Ave #G, Buena Park, CA 90620, 웹사이트: www.teloyouthkorean.com

202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달빛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달빛" 검색
 유튜브: "달빛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학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어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 auraheli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ea@itsla.edu

강준민 칼럼

전쟁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우리는 속도를 숭배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앞서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속도가 아니라 고요 속에서 자랍니다. 속도는 불안과 조급함, 그리고 산만함을 낳습니다. 광속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은 심각한 정서적 혼란과 깊은 내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속도만을 추구하면 관계는 피상적이 됩니다. 피상적인 관계는 결국 공허를 낳습니다. 깊이 화려했수록 속은 더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가 만들어 낸 성공과 성취는 깊은 만족을 주기보다는 공허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갔다가 추락을 경험한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기 원하시는 삶은 깊은 만족의 삶입니다. 깊고 친밀한 사랑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

습니다. 왜 깊이가 중요할까요? 깊이는 어떻게 자라는 것일까요?

첫째, 깊이는 서두름이 아니라 머물에서 자랍니다. 우리는 빨리 배우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결과를 만들어 내길 원합니다. 하지만 깊이는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깊이는 오래 머물 때 형성됩니다. 말씀 앞에 오래 머물 때 깊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깊이는 반복을 통해 자랍니다. 반복은 깊음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비결도 반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반복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시 1:1-3; 수 1:8). 깊이는 머물에 있습니다.

작은 꽃 앞에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한 송이 꽃을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에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 머물수록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한 절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오랫동안 그 말씀에 머물러 다양한 각도로 묵상에 보십시오.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속도를 늦추십시오.

뿌리 깊은 나무에게서 머물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무는 한 곳에 심기면 그 곳에 오래 머물습니다. 자주 옮겨 심으면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결국 말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장은 느낄지라도 뿌리는 깊어집니다.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깊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 보이는 삶을 지탱합니다. 큰 나무는 속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마침내 거목(巨木)이 됩니다.

둘째, 깊이는 소음이 아니라 고요 속에 자랍니다. 깊이가 없으면 삶은 소음이 됩니다. 말은 많지만 울림이 없습니다. 고요는 깊음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속도는 우리를 바깥으로 끌어내지만, 고요는 우리를 내면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영혼은 고요를 좋아합니다. 고요한 영혼이 깊은 영혼입니다. 고요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침묵을 훈련해야 합니다. 침묵 가운데 머물러 기다리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산만했던 생각은 하나로 모이고, 요동치던 감정은 잠잠해 집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거짓 자아가 아니라 참 자아를 발견합니다. 고요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시 46:10).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침묵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비둘기처럼 조용히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고요는 깊이 있는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빠른 변화는 쉽게 무너집니다. 반면에 깊은 변화는 오래 지속됩니다. 때로는 말씀

을 빠르게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독하면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을 깊이 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깊은 묵상이 깊은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존재 속에 스며듭니다. 지식으로 머물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히 4:12). 깊이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깊이는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고요 속에서 자란 변화는 삶 전체를 새롭게 합니다. 속도를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서두름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고요 속에 머무십시오.

깊이는 시간과 침묵과 고요를 친구로 삼습니다. 너무 빨리 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깊어지려고 노력하십시오. 깊어지면 잠시 멈추고, 조용히 앉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요히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 영혼은 다시 소생합니다. 고요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됩니다. 깊이는 속도가 아니라 고요 속에서 자랍니다.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자라십시오. 모국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종종 고요한 시간을 갖곤 합니다. 고요한 영혼으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을 깊은 말씀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글을 울산에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쓰고 있습니다. 부족한 중의 모국 집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유철 칼럼

최우선 명령, 말씀을 전파하라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말세는 하나님말씀을 가볍고 경홀히 여겨 사람 보기에 좋은 것으로 대체하는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딤후4:3-4) 영적 위기의 3가지 징조, 1)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들을 불편하게 하는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2) "귀가 가려워서" 원어적으로 '귀를 긁어줄 것을 찾는' 상태를 말하는데,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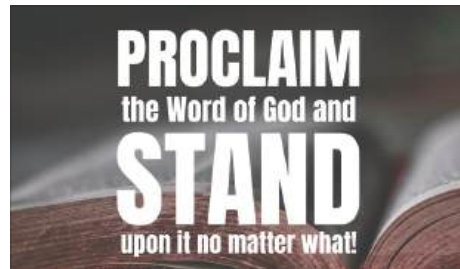
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자기중심성의 선택적 청취입니다. 3)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가 아닌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스승을 선택하는 것으로 말씀의 권위보다 개인의 취향이 우선입니다. 그 결과 점진적인 이탈이 일어나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는 말씀대로 건강한 사귀, 코이노니아가 아닌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원인은 '자기중심성'의 죄 때문입니다.

신앙은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신 영일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소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느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느냐, How가 아니라 What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세상의 영, 악한 영,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의 영도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간교하여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과 비슷하거나 더 좋아 보

이기까지 합니다. 90% 이상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10%의 잘못으로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에덴동산의 뱀은 하와와 절친이었지만 간교했고 유혹의 말은 그럴 듯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살짝 비틀어 "죽을까 하노라" 아담과 하와가 듣고 싶었던 말로 바꾸었습니다. 결국 분별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 절망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개인의 체험을 성경의 권위보다 앞세우면 100% 잘못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3:16)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성품은 거짓이 없으시고 식언치 않으시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 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민23:19)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

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이다"(삼상15:29) 하나님 계시의 완성인 성경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다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기 좋은 말만 전하는 설교와 불편한 진리를 회피하는 신앙문화가 가득해집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개인적 감정과 경험을 우선시하고, 사람들 교제를 더 중요시 여기는 풍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 최고의 명령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딤후4:1-2)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최우선의 일을 통해 선교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는 사명까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샬롬!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체
-----------------	--------------------	-----------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Kitchen팀, Bathroom팀, ADU 전문, Roofing팀, Solar 설치팀, 마루시공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 Stucco팀, 철공팀, 페인팅전문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완전 전문가 Crew로 구성)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www.kurbanbuilders.com
www.en.kurbanlike.com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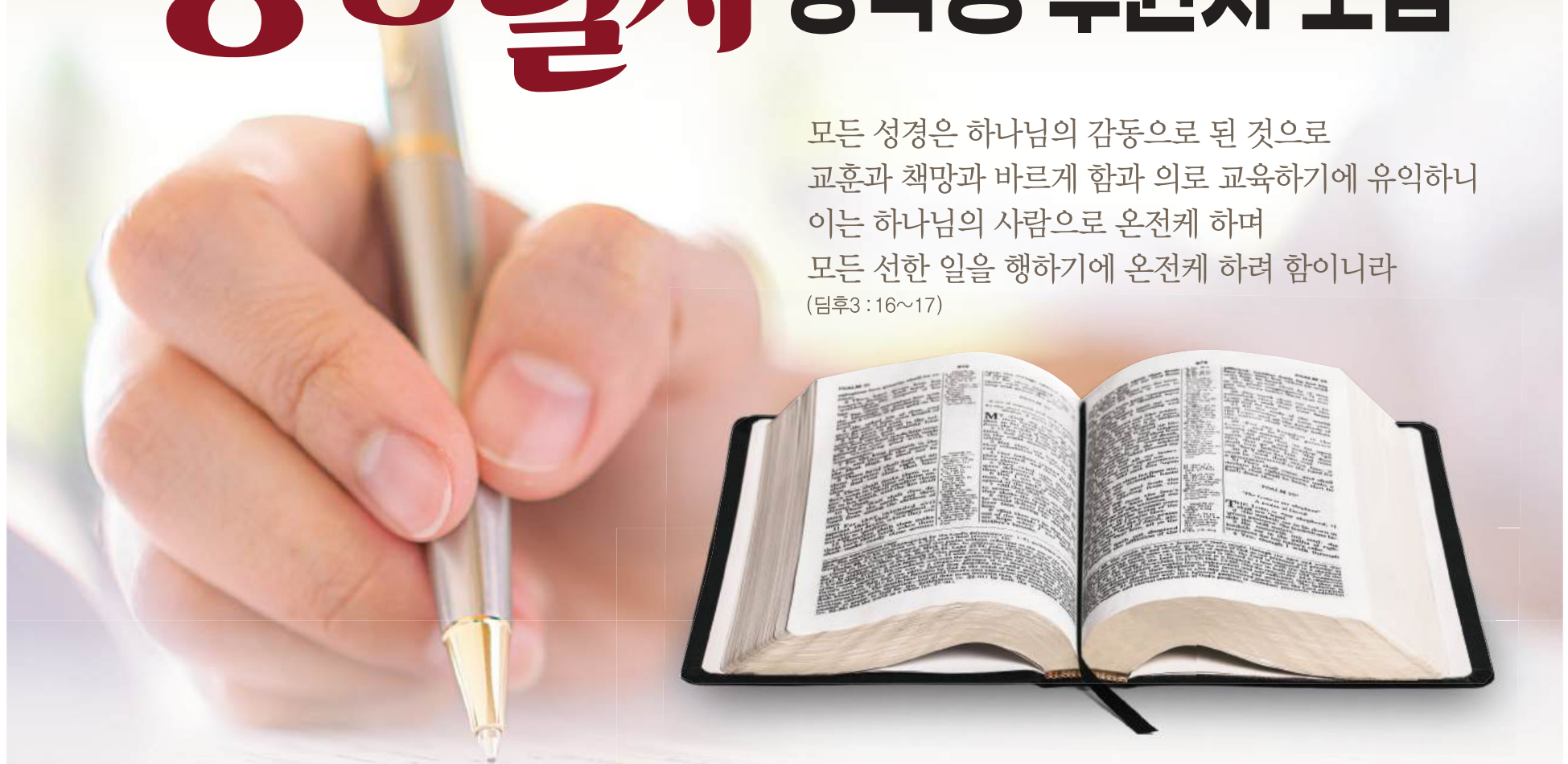
K-Urban Builders
K-Urban Like CSLB # 854389

견적 상담 **213-310-1800**
LA 2621 W. Olympic Blvd. # 206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213-798-2200**
OC 6904 Oran Cir.
Show Room Buena Park, CA 90621

성경 필사 **제3기** 장학생 후원자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16~17)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와 자극적인 콘텐츠 속에서 마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가 다시 말씀 앞에 서도록 돕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미주 기독교일보는 올해도 신약성경 6권 필사 장학생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로마서까지,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써 내려가며 그들의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까지 총 34명의 장학생이 선정되어 말씀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글을 적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인생의 방향을 세우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 장학생 한 명을 세우는 것은 한 인생을 세우는 일입니다.
- ★ 말씀을 붙잡은 다음 세대는 교회를, 가정을, 이 땅의 미래를 일으킵니다.

이 귀한 34명의 장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말씀 안에서 걸어가도록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분들은 이들에게 전달될 장학금 후원자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결단이 다음 세대에게는 한평생 잊지 못할 은혜가 됩니다. 이들의 손끝에서 써 내려가는 말씀 한 줄 한 줄이 장차 이들을 세우는 능력과 생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귀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 감사합니다.



지난 1기와 2기 장학생들이 고백한 은혜의 이야기

- “필사하는 동안 제 삶이 변했어요.”
-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제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서히, 저는 제가 붙들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 “나는 성경 필사를 통해 희망을 품게 되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주님과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 “하나님께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아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장학금 **1인당 \$1,000**

문의 : 기독교일보 213-434-1170
 이메일 : chdailyreporter@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기독교일보



주최 : 기독교일보

주관 :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이상명 칼럼

검색의 시대, 사색을 잃다



이상명 총장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면 포크보다 스마트폰을 먼저 드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요리는 식기 전에 먼저 렌즈에 담긴다.

때로는 접시 위의 실물보다 필터로 보정된 사진 속 음식이 더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현실보다 이미지가 더 강한 설득력을 갖는 순간, 우리는 프랑스 사회철학자, 미디어 이론가 장 보드리야르가 말한 '시물라시옹(simulation)'의 세계에 들어선다. 이는 실제보다 더 실제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현실을 대신하는 상태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물라시옹의 정점에서 살아간다. 인간의 뇌를 본뜬 인공 신경망

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며 세상을 재구성한다. 불과 몇 해 전까지 공상과학처럼 보이던 기술이 이제는 손바닥 위의 일상이 되었다. 기술은 삶을 경이롭게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질문을 던진다. "모든 것이 복제되고 생성되는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진짜'는 무엇인가?"

디지털 환경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흐린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는 곁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자주 우리의 감각을 점유한다. 정교한 딥페이크와 가짜 정보는 진실을 분별하려는 의지마저 무디게 만든다. 우리는 음식을 즐기기도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 주문하고, 경험보다 기록을 앞세운다. 시물라시옹의 세계에서 이미지는 실체를 밀어내고, 검색은 사색을 대체한다. 본질보다 데이터의 그림자가 더 커지는 역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다.

그러나 인간은 단순한 정보 처리 장치가 아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창 1:27) 지음 받은 존재임을 선포한다.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도 이 창조적 본성의 발현이다.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은 단순히 지적 능력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타자와 관계 맺는 능력, 옳고 그름을 묻는 도덕적

감수성, 그리고 '왜 사는가'를 붙들고 씨름하는 의미 추구의 본능이다. AI는 수십억 개의 텍스트를 학습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지만, 단 한 번도 고독을 느끼지 않으며 자신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용서를 구하지 않고, 타인의 아픔 앞에서 잠 못 이루지도 않는다. 바로 그 자리, 기계가 끝내 도달하지 못하는 그 자리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이며,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신 곳이다(창 2:7).

문제는 기술의 '업데이트'가 인간의 '성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삶의 방향은 흐릿해졌다. 검색창은 수많은 답을 제시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침묵한다. 우리는 정답을 찾는 데는 능숙해졌지만, 진리를 사색하는 능력은 점점 잃어가고 있다.

이 간극을 사도 바울은 이미 통찰하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고전 13:12). 고대 고린도의 거친 청동 거울은 사물의 윤곽만 겨우 비쳤다. 오늘의 알고리즘과 디지털 필터도 다르지 않다.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면서도 정작 인간 내면의 깊이는 반영하지 못한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통찰은 오히려 약아지는 역설, 그것이 바울이 예고한 '희미함'의 현대

적 형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색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색은 거창한 철학적 수련이 아니다. 하루 한 번, 알람을 끄고 성경 한 구절 앞에 조용히 머무는 것이다. 스크롤을 멈추고,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며 "나는 지금 무엇을 좇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마주 앉은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나누는 한마디가 수천 개의 '좋아요'보다 더 깊은 연결을 만들고, 알고리즘이 건넨던 느린 독서 한 페이지가 검색창이 끝내 줄 수 없는 방향을 가리킨다. 데이터의 소음이 가라앉을 때, 비로소 우리 안 깊은 곳의 목소리가 들린다.

기술은 계속 진화할 것이다. 그러나 삶의 가치는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진리를 담아내는 깊이에 의해 결정된다. 고전과 성경은 혼돈 속에서도 본질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다. 검색이 답을 주는 시대일수록, 질문을 스스로 세우는 사람이 더 희귀해지고 더 소중해진다. 픽셀의 환상에 머무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 때 - 그것이 광장에서 수많은 이미지에 노출되면서도 끝방에서 한 분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의 방식일 때 - 우리는 비로소 이 시대를 건너갈 지혜를 얻는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온전한 인간으로 남을 수 있다.

제1회 언더우드 선교대회 특별 기고

"끝나지 않은, 끝낼 수 없는 사명"



천진석 목사
남가주 살림교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고(故) 에스터 권 선교사님은 저의 사학과 선배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야 그분의 삶과 사역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평생을 선교에 매진하시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에스터 권 선교사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헌신에 감사하며, 그분이 걸어간 선교의 길을 따르겠노라 다짐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연목회 정효남 회장님과 모든 임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Great Commission)'입니다. 4복음서가 전하는 부활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수렴됩니다. 바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어진 사명도 "가서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신 메시지도 갈릴리로 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가 어떤 직업과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모든 민족'을 향해 있습니다. 유대인만의 구원을 생각하던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선포였습니다. 이 복음의 물결은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이를 통해 조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최근 저는 한국 최초의 자생 교회인 소래교회와 맥킨지(William John McKenzie) 선교사의 기

록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1893년 캐나다에서 혈혈단신으로 조선을 찾은 그는 스스로 조선인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짙신을 신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주민들의 고통 속에 깊이 뛰어들었습니다. 소래교회의 첫 담임목사가 된 그는 동학농민운동 당시, 피흘리는 동학군들을 정성껏 치료해 주기도 했습니다. 서학(기독교)을 반대하던 동학교도들이 오히려 맥킨지를 존경하여 교회 건축 성금을 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이 어떻게 벽을 허무는지를 보여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30세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일사병의 충격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약혼녀 맥컬리는 슬픔을 딛고 조선으로 건너와 그의 남은 유산을 교회에 기증하며 선교의 유업을 이었습니다. 맥킨지의 비서 뒤편에는 맥컬리가 쓴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가 많다 함이 옳도다. 소래교회는 조선의 처음 열매요, 목사의 몸은 여기서 자도다."

맥킨지 선교사와 에스터 권 선교사님은 시공간은 다르지만,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다 주님 품에 안겼다는 점에서 같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에스터 권 선교사님 역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줌으로써 주님의 가르침

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과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은 이미 '모든 민족'이 모여 사는 선교의 현장입니다. 저는 수년전 엘에이 컨벤션 센터에서 미국 시민권 신청할 때가 기억납니다. 무려 98개국에서 온 다양한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켓에서, 공원에서, 학교와 직장 등에서 매일 열방을 만납니다. 이제 선교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 곁에 있는 서로 다른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 스스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결하실 때까지 수행되어야 하는 사명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만민을 향해 직접 행하시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 받은 종들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 하나님의 선교에 투신하셨던 고(故) 에스터 권 선교사님의 삶을 가슴에 새깁시다. 우리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멋진 동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的一切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새애들,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DAVID'S TENT
다윗의 장막

REPENTANCE • RESTORATION • REVIVAL

다윗의 장막

— DAVID'S TENT —

70 HOURS NON-STOP
PRAYER & WORSHIP

JOIN US

70시간 연속 기도회

Pepperdine University

Malibu, California

7월 27일(월)~ 7월 30일(목)

July 27(Mon)–July 30(Thu)

📧 70pray@gmail.com ☎ 626-810-3455 🌐 www.70pray.com



QR CODE
70Hour Prayer

[함께하는 기관] 미주복음방송 | CABC | 굿네이버스 | 한국침례교해외선교회(FMB회장: 주민호 목사) | SEED 선교회
WMU(남종성 교수) | CCC(박종술 목사) | NextGen English Ministry(손경일 목사) | 기독교일보
모퉁이들선교회 | 미주성결신학교 | Kalam Mission | 뉴욕모자이크교회 | 토렌스조은교회 | 아름다운교회
더크로스교회 | 오렌지가나안교회 | 남가주사랑의교회(이준영 목사) | 세계등대교회 | 원더풀커뮤니티교회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도덕적 기초와 지혜, 인간 이해와 문학적 감각

에이브러햄 링컨의 책장에 꽂혀 있던 세 권의 책



워싱턴D.C. 링컨 기념관 속 링컨 동상. ©픽사베이

1.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에이브러햄 링컨. 그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 종종 인용되는 한 문장이 있다. '그의 방 한쪽에 놓여 있던 작은 책장에 단 세 권의 책만이 꽂혀 있었다'는 문장 말이다. 링컨의 정규 교육은 고작 1년 남짓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자기 내면을 누구보다 잘 알고 닦은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의 방에 꽂혀 있었던 세 권이 무엇일까? '성경, 이습

우화, 그리고 셰익스피어'다. 이 간결한 목록은 링컨의 지적 배경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그리고 그 세 권의 책이 그의 신앙과 철학과 지도력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세 권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링컨의 정신을 세운 기둥이었고, 그의 신앙과 언어와 사고, 그리고 정치 철학의 원천이었다.

3. 우선 링컨은 대부분의 예상과는 달리, 기독교적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독실한 신앙인으로 알려진 바도 없다. 링컨은 죽을 때까지 정식 교인이 아니었으며, 그가 사망할 당시 종교적 회의론자였는지, 아니면 기독교적 신앙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파악한 바로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가족과 함께 뉴욕 예비교당(New York Avenue Presbyterian Church)에 다녔다.

4. 물론 그는 기성 교

회가 요구하는 복잡한 교리와 교파적 분쟁에 동의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정식 교인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고 그가 신앙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링컨의 삶과 연설에 성경적 사상이 깊이 녹아들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분명 어릴 때부터 읽어왔던 성경은 그에게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었을 것이다. 성경은 그에게 삶의 기준이자 도덕적 나침반이었다. 5. 그의 연설문을 자세히 보면, 수많은 성경구절과 사상이 녹아 있다. 예컨대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그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유명한 문장을 남겼는데, 그 정신은 창세기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인류 평등 사상과 깊이 연결돼 있다. 또한 그의 재선 취임 연설에서는 남북전쟁의 비극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6. 다음으로 링컨은 단순하고 분명한 언어를 구사한 대통령으로 유명하다. 그는 청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사학적 장식(Rhetorical device)'을 좋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짧고 간결한 문장 속에 깊은 지혜를 담았다. 이러한 말하기 방식은 '이습 우화'에서 배운 것이었다. 이습 우화는 '간단한 이야기로 큰 교훈을 전하는 문학'이다. 링컨은 이를 통해 정치적 논쟁이나 복잡한 문제를 풀어갈 때 '비유와 이야기의 힘'을 활용했다.

7. 예를 들어 상대방과의 논쟁에서 곧바로 맞서는 대신 우화나 짧은 이야기를 통해 상대를 웃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진리를 억지로 주입하지 않고, 은유와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방식을 즐겨 사용했다.

이습우화는 링컨을 '이야기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그의 정치적 설득력과 대중적 인기를 이끌어낸 지혜의 원천이었다.

8. 끝으로 링컨은 '셰익스피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영혼과 감정을 누구보다 깊이 탐구한 문학가'였다. 링컨은 가난한 농가의 소년이었지만, 셰익스피어를 탐독하며 인간의 내면과 삶의 비극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통해 권력의 허무함, 인간 욕망의 덧없음을 깨달았고, 동시에 웅장한 언어의 힘을 배웠다.'

9. 그의 연설은 단순히 정치적 언어가 아니라, 문학적 울림을 담고 있다. 게티즈버그 연설의 압축적이고 장엄한 문장은 셰익스피어의 언어에서 배운 리듬과 호흡이 스며 있다. 셰익스피어는 링컨에게 인간의 본성과 비극을 이해하는 눈을 열어주었고, 그로 하여금 단순한 정치가가 아닌, 인간 영혼을 울리는 지도자가 되게 했다. 링컨의 책장이 세 권으로만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10. 비록 그가 많은 책을 소유하거나 독파하지는 않았지만, 그 세 권을 통해 배운 교훈은 그의 도덕적 기초를 세웠고, 이습 우화는 그의 언어와 지혜를 다듬었으며, 셰익스피어는 그의 인간 이해와 문학적 감각을 길러줬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책과 정보 속에 살아가지만, 정작 깊이 있는 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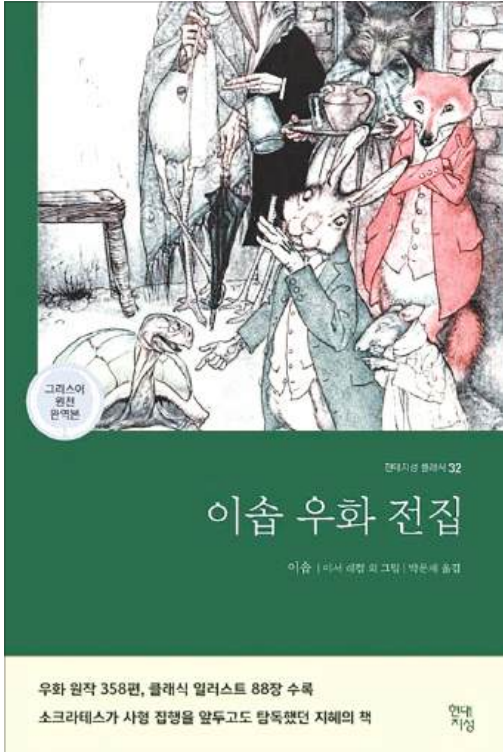
서를 하지 못할 때가 많다. 링컨은 많은 양이 아니라 '깊은 독서(Deep Reading)'가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1. 링컨의 작은 책장은 단순한 가난의 증거가 아니라, 위대한 정신의 산실이었다.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이습 우화에서 '삶의 지혜'를 얻었으며, 셰익스피어에서 '인간의 비극과 언어의 장엄함'을 배웠다. 이 세 권이 모여 '링컨'이라는 한 위대한 인물을 빚어낸 것이다. 이 세 권은 내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 오늘에 이르게 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나는 링컨을 링컨 되게 했던 바로 그 세 권 덕이라 말할 수 있다.

12.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 꼭 필요한 세 권의 책을 기쁘게 소개한다. 바로 링컨의 책장에 꽂혀 있던 '성경', '이습 우화', '셰익스피어' 세 권 말이다. 성경에서 '복음의 진수를 깨내고', 이습우화를 통해 '청중들의 마음을 열어젖히게 하고', 셰익스피어를 통해 '비극을 넘어 소망의 메시지를 멋지게 전하려 한다면', 이 최상의 세 가지 무기를 반드시 장착하라.

신성욱

크리스찬북뉴스 편집교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이습 우화 전집.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21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JOHN 20:21

출가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TV 기독교일보 신앙간증

늘 새롭게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신앙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늘 새롭게'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신앙간증하실 분이나
주위에 추천하실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신청 및 문의 : 기독교일보 213-739-0403 / chdailya@gmail.com

*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크리스찬북뉴스 칼럼] '좀비딸 아버지'의 현실판, 하나님 아버지

영화 '좀비딸'이 그려낸 부모의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 발견

좀비가 나오는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좀비의 모습과 행동이 징그럽고 괴이하기 때문이고, 그들의 공격을 받거나 반대로 퇴치하는 장면이 끔찍하고 잔인해서도 그렇지만, 신체와 정신이 모두 건강했던 사람, 그것도 친밀한 관계를 맺던 이웃 또는 가족이 괴물이 되어 죽일 듯 달려 들고, 생존을 위해서라면 결국 그들을 죽여야 한다는 설정이 결코 유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좀비딸>을 보게 되었을 때, 솔직히 '다른 영화는 없나?'라는 생각을 했다. '좀비물에서 무슨 성경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생겼다. 좀비가 된 딸을 정상인처럼 살아가게 하려고 훈련하는 아버지 이야기라는 흥미로운 소재,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재미있는 장면들, 부모의 자식 사랑에 관한 감동 및 교훈 정도를 기대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성경적 관점으로 영화를 비평해 보자고 이야기 했는데, 정작 보고 나서 청년들에게 '네 동생이 좀비가 되면 저렇게 살리려고 애쓸 거야? 아니면 바로 죽일 거야?'라고만 물어보고 끝난 것이 아쉬워, 다시 한번 영화를 성경의 시각에서 평가해 보려고 한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좀비가 되어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리려는 아버지의 사랑. 국가 위기 상황으로 감염자들을 낚아챌 색출하고 발견 시 모두 사살할 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집행하던 상황에서, 아버지와 그의 절친한 친구들, 할머니가 함께 자기의 딸이자 손녀, 절친의 딸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감독은 우리에게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설정과 위태로운 환경에서도 가족의 사랑은 아름답고 위대하다는 것을 말하려 한다.

물론 감염된 딸이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되지 않았다는 점과 옛 기억을 일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버지에게 희망이 생겼을 것이다. 만일 초반에 등장하는 일반 감염자들과 같은 상태였다면, 살려야겠다는 판단이 서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1. 좀비 바이러스와 죄

흥미로운 것은 바이러스가 침투해 멸절된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 놓는 것처럼, 죄는 사람을 전적으로 망가뜨린다는 것이다. 좀비가 되면 친

밀했던 사람까지 가리지 않고 마구 공격하는데, 죄도 그렇다. 사랑하는 가족이든 가까운 이웃이든 상관없이, 죄성을 드러낸다. 좀비 바이러스는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고 몸을 뒤틀리게 만드는데, 죄도 사람의 지체 가운데 싸우는 정욕을 만들어 몸을 통제한다(약 4:1).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 죄는 극성을 부린다. 사람은 만물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깃든 창조주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데, 죄가 사람의 생각을 허망하게 만들고, 마음을 어둡게 한다(롬 1:20-21).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보여야 할 반응인 찬양과 감사가 아닌 독립과 대체를 추구한다(롬 1:22-23).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 아닌 다른 숭배 대상을 찾는 것은 명백한 죄의 결과다. 창조주의 능력과 신성을 부정하고 그 관계로부터 뛰쳐나온 죄인은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괴물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이고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막 7:21-22)"고 말씀하셨다. 이 얼마나 추악한 괴물의 모습인가!

그러나 바이러스와 죄는 겉모습이 유사하다 해서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좀비 바이러스는 감염체의 정신을 지배해 원래 가지고 있던 이성과 자아를 파괴한다. 그러니까 좀비가 하는 행동은 좀비로 변해버린 괴물이 하는 행동이지 감염된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죄는 좀비 바이러스보다 더욱 교묘하고 치명적이다. 죄는 사람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질을 바꿔버린다. 새로운 인격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죄인은 자기 존재를 상실한 채 죄가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전인격이 죄를 원하게 된다.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신 악한 일을 선하다고 인식하고, 하나님이 가중히 여기시는 일을 기뻐한다(롬 1:32).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일을 하고 싶은 강력한 욕구인



▲영화 '좀비딸' 중 한 장면.

정욕에 따라 살아간다(롬 1:24).

그래서 죄인은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는 피해자가 아니다. 악한 본성을 타고나 의지적으로 죄를 즐기거나 저지르는 가해자다. 좀비는 이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감염되지 않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죄인은 그렇지 않다. 자신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여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2. 아빠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좀비딸' 주인공이자 영웅은 바로 아빠다. 딸을 '좀비'라 부르지 않고 '수아'라고 부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아빠. 괴물이 아니라 자기 딸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영화를 본 대부분의 청년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인공 수아 정도의 증상을 보인다면,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어떻게든 살릴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이 영화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를 전개한 <닭강정>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 최선만은 의문의 사고로 닭강정이 되어버린 딸의 본모습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자녀를,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 강조된다. 부모는 자녀를 버리거나 떠날 수 없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요일 2:15)"이라고 부른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요일 3:1)".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

를 치료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부모의 내리사랑보다 훨씬 크고 깊은 은혜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왔다!

3. 치료 혈청과 그리스도의 보혈

영화 '좀비딸' 원작인 웹툰에서는 좀비가 된 수아를 치료한 혈청이 외 부모부터 공급됐다고 한다. 영화에서는 -스포일러가 될 것 같지만-아빠로부터 그 혈청을 얻는다. 딸을 훈련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물리고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혈청이 아빠 몸속에 생성된 것이다.

이는 아빠의 사랑을 극대화하려고 각색한 것 같다. 딸을 훈련시켜 치료제를 얻을 때까지 어떻게든 기억을 잃지 않고 몸과 정신을 개선하려고 애쓰면서, 아버지는 오히려 딸에게 많이 물리고 고통을 받지만, 그것을 통해 오히려 딸을 낫게 하는 유일한 치료제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바꾸면 훨씬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그 정도 물려도 좀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감동을 깨려는 이들도 분명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 자신이 바이러스를 받아들였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죄로부터 치료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방법과 닮은 점이 보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쁘신 뜻대로 내어주셨다.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셨지만,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창세 전에 품으신 큰 사랑으로 우

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부모의 내리사랑보다 훨씬 크고 깊은 은혜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왔다!

3. 치료 혈청과 그리스도의 보혈

영화 '좀비딸' 원작인 웹툰에서는 좀비가 된 수아를 치료한 혈청이 외 부모부터 공급됐다고 한다. 영화에서는 -스포일러가 될 것 같지만-아빠로부터 그 혈청을 얻는다. 딸을 훈련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물리고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혈청이 아빠 몸속에 생성된 것이다.

이는 아빠의 사랑을 극대화하려고 각색한 것 같다. 딸을 훈련시켜 치료제를 얻을 때까지 어떻게든 기억을 잃지 않고 몸과 정신을 개선하려고 애쓰면서, 아버지는 오히려 딸에게 많이 물리고 고통을 받지만, 그것을 통해 오히려 딸을 낫게 하는 유일한 치료제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바꾸면 훨씬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그 정도 물려도 좀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감동을 깨려는 이들도 분명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 자신이 바이러스를 받아들였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죄로부터 치료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방법과 닮은 점이 보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쁘신 뜻대로 내어주셨다.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셨지만, 우리 죄를 해

결하기 위하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SHALOM ACUPUNCTURE

살롬한의의원

Diamond Bar 살롬한의원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1st Time Discount

50%

with Google Reviews

- ✔ **각종 보험 완비**
Comprehensive Insurance Coverage
- ✔ **다양한 임상경험**
A variety of Clinical Experience
- ✔ **체질 맞춤 보약, 알약**
Constitution-Customized Herbal Medicine
- ✔ **체열 사진촬영**
Thermal Imaging Photography

(909) 860-4260

cell: (213) 518-4635 / shalomacu.drkim@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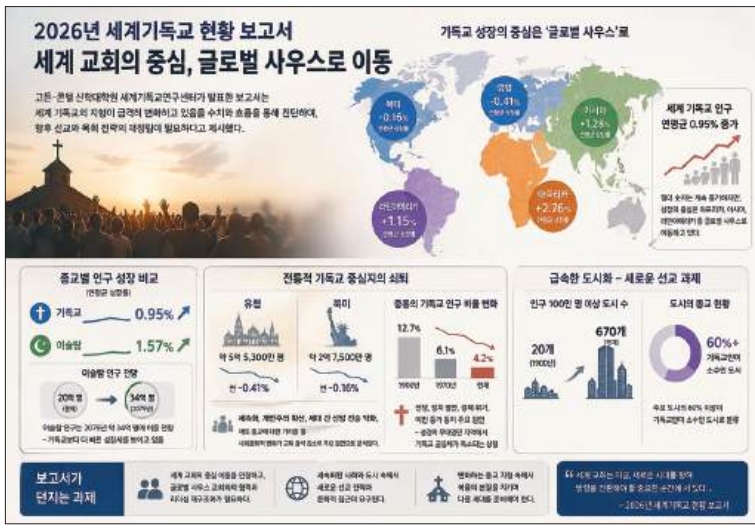
DR. JUNE KIM LAC

22640 Golden Springs Dr., STE B, Diamond Bar, CA 91765

세계 기독교 지형 변화 “인구 이동 · 도시화 · 박해 대응 시급”

전 세계 기독교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성장의 중심축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회가 단순한 교세 확장 여부를 넘어 인구 이동, 도시화, 종교 지형 변화, 박해, 난민 위기, 재정 투명성 등 복합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든·콘웰 신학대학원 세계기독교연구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 Christianity)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계기독교 현황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보고서는 오늘날 세계 교회가 맞이한 변화를 진단하며, 향후 선교와 목회 전략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기독교 인구는 연평균 0.95% 증가하고 있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증가의 중심은 전통적인 서구권이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유럽과 북미가 기독교 세계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남반구 국가들이 복음주의 성장, 청년 인구 증가, 활발한 교회 개척을 이끌고 있다. 이는 세계 교회의 리더



2026 세계 기독교 현황 보고서 내용 관련 도표 및 그래프. ©챗GPT

십 구조와 신학 담론, 선교 우선순위까지 바꾸는 흐름으로 평가된다. 반면 이슬람 인구는 연평균 1.57% 증가해 기독교보다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무슬림 인구는 20억 명을 넘어섰으며, 2075년에는 34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종교 인구 구조의 변화가 국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심지의 쇠퇴
전통적인 기독교 중심 지역의 감소세도 이어지고 있다. 유럽의 기독교 인구는 현재 약 5억 5,300만 명으로 추산되며, 매년 0.41%씩 줄고 있다. 북미 역시 약 2억 7,500만 명 규모지만 연간 0.16%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세속화, 개인주의 확산, 세대 간 신앙 전승 약화, 제도 종교에 대한 거리

2026년 세계기독교 현황 보고서 발표

감 등을 꼽는다. 교회 출석률 감소는 사회문화적 가치관 변화와 맞물려 있다. 기독교의 발상지인 중동 지역에서도 감소는 계속되고 있다. 1900년 중동 인구의 12.7%가 기독교인이었지만, 1970년에는 6.1%, 현재는 4.2% 수준으로 낮아졌다. 전쟁과 정치 불안, 경제 위기, 이민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성경의 무대였던 지역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은 세계 교회에 상징적 과제로 받아들여진다.

보고서는 급속한 도시화를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1900년 전 세계 20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670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주요 도시의 60% 이상은 기독교인이 소수인 도시로 분류된다. 이는 교회가 전통적인 지역 공동체 중심 모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도시는 높은 이동성, 익명성, 다문화성, 빈부 격차,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교회 역시 도시 선교, 직장 선교, 캠퍼스 사역, 온

라인 공동체, 다문화 목회 등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도시화는 위기이자 기회다.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의 접촉점도 많지만, 동시에 경쟁하는 가치관과 삶의 속도 속에서 교회의 존재감은 약화될 수 있다. 선교 자원의 확대와 성경 번역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구의 27.7%에 해당하는 약 23억 명은 여전히 복음을 접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해와 난민 위기…고통받는 교회
보고서는 박해 문제 역시 여전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신앙 때문에 순교한 기독교인 수는 과거보다 감소했지만, 지난 10년간 약 90만 명이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됐다. 또 최근 수십 년 사이 세계 난민 수가 급증하면서 현재 난민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450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문제는 단순한 인도주의 위기를 넘어 교회가 감당해야 할 돌봄과 환대, 사회 통합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강혜진 기자

외계인, UFO, 그리고 영적 전쟁: 기묘한 현상을 바라보는 기독교적 관점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존 스톤스트리트 회장의 기고글인 ‘악이 선이라 불리는 시대: 미국 사회의 도덕적 혼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악이 선이라 불리는 시대: 미국 사회의 도덕적 혼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4월 15일 게재했다.

스톤스트리트 회장은 폴슨 기독교 세계관 센터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신앙과 문화, 신학, 세계관, 교육 및 변증법 분야에서 인기 있는 작가이자 연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최근 미국의 J.D. 밴스 부통령은 자신이 UFO와 외계 생명체에 대해 “집착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람들이 흔히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사실은 정체를 숨긴 악한 영적 존재일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큰 속임수 중 하나는 사람들이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외계 생명체에 때론 묘한 사람 같은 사람이다.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외계 생명체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자연 세계와 초자

연 세계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 교리에 분명히 뿌리를 두지 않은 모호한 영성의 확산은 현대 사회에서 외계 생명체에 대한 다양한 믿음을 만들어냈다. 수십 년 전 기독교 사상이 C. S. 루이스는 사람들이 왜 실제 하나님을 만나는 대신 모호한 영성을 선호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인격적인 하나님이라면 괜찮다.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아름다움과 진리, 선의 주관적인 하나님이 되면 더 좋다. 우리 안에 흐르는 형체 없는 생명력, 우리가 끌어다 사용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이라면 가장 좋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살아 계시며, 줄의 반대편에서 우리를 붙잡아 당기시고, 무한한 속도로 다가오시는 사랑님이며 왕이며 남편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최근 기독교 방송사 CBN 뉴스는 외계 현상을 초자연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인터뷰에서 잘 알려진 천체물리학자 휴 로스 박사는 UFO와의 조우 경험이 악한 영적 존재의 활동과 관련된 가능성을 제기하며, UFO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컬

트(신비주의적 영적 활동)에 관여했거나 가족 중 그러한 배경을 가진 경우가 통계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교학자 다이애나 파술카는 이른바 ‘UFO 연구(UFOology)’가 일종의 종교처럼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적 공백을 다른 방식으로 채우려는 시도가 외계 생명체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외계인과 UFO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이 인공지능(AD)에 대한 관심 증가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부에서는 인간이 아닌 다른 차원의 지적 존재가 기술을 통해 인간과 소통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인공지능과 외계 생명체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악한 영적 존재의 활동에 대한 대화 역시 100년 전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주제가 되었다.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그의 저서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했으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위에 있는 모든 권세 위에 왕으로 좌정하셨다고 믿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선포하는 메시지이며, UFO나 외계 생명체,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주제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진리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사람들이다.

현대 사회에서 외계 생명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연주의적 세계관의 영향이다. 인간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보는 세속적 인본주의는 오히려 인간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만약 우주에 다른 존재가 없다면 인간이 가장 뛰어난 존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다른 생명체를 끊임없이 찾으려는 동기를 어느 정도 제공한다.

물론 외계 생명체나 UFO, 그리고 우주 어딘가에 존재할지 모르는 생명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다. 그러나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 가운데 상당수는 드론이나 기상 관측 풍선, 혹은 정부의 군사적·기술적 활동과 같은 보다 단순한 이유로 설명될 수도 있다. 동시에 성경, 특히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하는 악한 영적 존재의 활동 가능성 역시 배제해

서는 안 된다.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실제로 존재하는 악한 영적 존재들이 그 사실을 시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싸움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영적 세력과 우주의 권세에 대한 것이라고 가르친다. 동시에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러한 모든 권세를 무장 해제시키시고 공개적으로 패배시키셨으며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고 선포한다.

기독교 철학자 닐 플랜팅가는 그의 저서 『원래 있어야 할 모습이 아니다』에서 그리스도인은 악을 실제 존재하는 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악은 실제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는 악을 이미 패배한 적으로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을 마주할 때에도 붙들어야 할 분명한 확신이 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위에 영원히 승리하신 주님이신 사실이다. 최승연 기자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이것 하나 없으면 은퇴는 엄두도 내지 마세요. 왜 은퇴에 어뉴이티가 필수인지요

질문 하세요 문선영씨, 저는 시애틀에서 비즈니스 조그만 것 하나 하고 있는데 은퇴를 할려고 내놓았더니, 관심 있는 사람도 나타나서 곧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와이프랑 겨우 30년 동안 하루도 움직이지 못하고 가계에 묶여서 해 온 비즈니스인데, 정리가 되면 이제 다 잊고 저희는 여행이나 다니면서 좀 살고 싶습니다. 지난 번 손녀가 생일이라고 해서 딸 집에 갔더니 사위가 본인이 주식은 잘 한다고 자기도 돈을 맡겨 보라고 하더군요. 은퇴자금이 만들어 주고 무조건 키워준다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 점심 식사때는 잘 아는 집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이 분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데 부동산 상가 좋게 나왔는데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이랑 공동 투자하면 얼마씩 나온다고 그것이 어떻겠냐고 슬쩍 얘기하더군요. 그런데 와이프는 문선영씨 유튜브를 찾아 보고 한 일년을 꾸준히 본 것 같은데 무조건 어뉴이티 해야 한다고 문선영씨에게 전화해 보라고 성화입니다. 제가 혹시 그냥 뭐라도 뭔가 혼자 몰래 할까봐 아직 저녁으로 문선영씨에게 전화해 왔다고 어쩌나 재촉인지 모릅니다. 제 생각은 사위가 한다는 주식은 사위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제가 주식을 전혀 모르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망한 사람도 보고 해서 불안하고, 집사님이 권하는 상가 투자는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도 비즈니스 하면서 건물주가 세 받아 먹고 사는 것을 보면서 무척 부러웠습니다. 어뉴이티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되는데 어쨌든 은퇴 플랜 중에 하나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어뉴이티를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어뉴이티가 꼭 필요할까요. 문선영씨 생각은 어떤지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왜 은퇴하면 어뉴이티라고 하는지, 은퇴에 그렇게 어

도 못 믿어서 그냥 은행에만 넣어 놔서 가지 않고 생각하면, 수백은 길어서 쓸 돈은 많지는데 돈은 자라지 않아 이것도 적절하지 않지요. 오늘은 왜 어뉴이티가 은퇴에 필수인지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퇴하고서 살 집을 짓는게 은퇴 플랜인데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찌는 듯한 더위에도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먼저 하나 짓습니다. 가장 좋은 재료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말이죠.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예쁜 꽃밭도 꾸미고, 그 옆에는 내가 좋아하는 물고기도 수영하는 연못도 하나 지어 볼까요? 미래에 손주들이 오면 올라가 놀으라고 트리하우스도 하나 지어 봅시다. 아주 멋진 집이지요. 여기서 라쿤이 와서 꽃밭을 흐트러 놓아도 내가 사는 집은 끄덕 없어야 합니다. 카요티들이 와서 연못을 엉망으로 만들어도 내가 사는 집은 끄덕 없어야 하죠. 거기에 강한 태풍

이 불거져 불이 나서 트리하우스가 망가지도 내가 사는 집은 끄덕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퇴에 있어서 주식이란



렌탈 인컴이 들어오는 하우스건이 나머지 것들은 모두 꽃밭이나 연못 그리고 트리하우스 같은 것 있으면 좋은 것들이지만, 제대로 된 은퇴 플랜은 바로 내가 편히 안전히 쉴 수 있는 집, 주식이 떨어져도 안떨어지고 은행 보다 이자도 많이 받고, 내가 아파도 병원비로 다 소진되지 않는 어뉴이티 같은 플랜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은퇴상담과 플랜은 은퇴 현재, 앞으로 여러분과 30년을 함께 할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맡겨 주세요.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어뉴이티 앵글 세미나

이번에는 오렌지카운티에서 만납니다

CD에 잠길 것이냐, 어뉴이티 배에 올라 7-8% 이자의 섬으로 향해할 것이냐

- 당장 쓰지 않는데 아직도 CD에 갇혀있습니까
- 7-8% 이자만 꺼내 쓰고 평생 원금은 남기고 싶으신지요
- 상품 선택이 아닌, 나에게 맞는 제대로 된 재정상담과 플랜을 원하시는 분

5월 6일, 수요일 저녁 6시

6 Centerpointe Dr. 700, La Palma, CA
참가문의는 626-827-9599로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비즈니스가 사명이 되는 시대

건강 · 경제 · 선교를 하나로

1. Teloyouth B.A.M은 비즈니스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 ✓ Teloyouth 핵심 메시지
- ✓ 세포신호(Cell Signaling) 기술 기반
- ✓ 우리 몸에서 줄기세포 활성화 (36배)
- ✓ 10년 이상 젊어지는 회복 프로그램
- ✓ 12개월 머니백 개런티
- ✓ 재구매율 91%-지속 가능한 구조
- ✓ 온몸의 세포 기능 · 구조 · 감정까지 회복
- ✓ 100만 명 이상 변화된 글로벌 사례

2. 왜 지금 반드시 필요한가?

- ✓ 성도들의 실제 삶을 회복시키는 도구
- ✓ 교회와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
- ✓ 선교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경제 시스템
- ✓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글로벌 리더십 플랫폼

B.A.M (Business As Mission)

- 비즈니스가 선교입니다
- 가정이 선교입니다
- 우리의 일터가 선교입니다

Teloyouth는 사역과 비즈니스가 하나 되는 플랫폼입니다

3. 세대별 비전

- ✓ 차세대 (20-30대)
 - 글로벌 창업 & SNS 기반 사역 (Telopet 포함)
- ✓ 중장년 (40-50대)
 - 글로벌 헬스 비즈니스 리더십
- ✓ 시니어 (60+)
 - 건강 회복 + 경제적 은퇴 플랜 + 사역



제3회 TELO B.A.M (Business As Mission) 미팅 초청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혼의 회복뿐 아니라 건강의 회복, 경제의 회복, 삶 전체의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로운 방법으로 생명을 살리고 계십니다. 건강을 회복시키고 경제를 세우며 세계를 섬기는 리더로 서십시오.

이번 제3회 미팅 핵심

- 실제 B.A.M 사역 진행 스토리 공유
- 건강 회복 & 삶의 변화 사례
- 글로벌 확장 비전 발표
- 차세대 리더 세우기 전략

대상

- 목회자 · 사역자
- 크리스천 사업가
- 차세대 창업가 & 리더



폴 김
젊음 회복 프로그램 수석코치
텔로 바이오텍 벤 디렉터

모임 안내

2026년 5월 2일 (토) 오후 2시
6820 Orangethorpe Ave #G, Buena Park, CA 90620

초청 대상 한정 / 예약 필수

문의 및 예약 : 714-732-8477 Paul Kim (수석코치)



텔로유스

www.TeloHealing.com
www.TeloYouthKorean.com